

# 한글의 2010.06 Vol. 215 June 문화 의



# 2015년 지방문화원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문화예술로 즐기는 인생의 황금기,  
문화로 나누는 아름다운 세상”



##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인생의 황금기를 문화예술로 즐기는, 어르신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입니다.



##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사업

어르신 동네의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서도 어르신문화학교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 사업

어르신문화학교 수강 어르신들이 공연단을 만들어 문화소외지역을 찾아 문화봉사를 펼칩니다.



## 어르신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 사업

어르신들의 삶의 문화(생활문화, 생애문화, 경험과 지식 등)를 창조적 문화콘텐츠로 개발합니다.



## 어르신문화단체 사회적기업화 추진

어르신문화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어르신들께 일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 Contents

2010. 06 Vol. 215 June

02	문화원 탐방	정선문화원
06	문화원 인물	광진문화원 정병웅 원장
08	문화원 이야기 ①	대구달성문화원
12	문화원 이야기 ②	김천문화원
16	우리의 길	걷고 싶은 숨겨진 시골길
22		담안의 여성, 길 위의 여성
26		조선시대의 주막이야기
32	책 수집가 안정응의 오거지서 (五車之書)	성문학과 외설사비에 얽힌 책 이야기
36	인식의 전환_놀거리	안성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42		정보사회에서 청소년들이문화 따라잡기
46	한국의 예절	공통예절
50	연합회 레이다	문화원 이모저모
58		우리문화소식
59		원장동정



등록번호 서울라12184 | 발행 한국문화연합회 | 주소 경기도가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상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o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중수 | 편집위원 박호천(다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중(안주 서구문화원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준성(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진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8382-7924 인쇄팀 임세연피 022288-2111 | 표지 사진협조 평택문화원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요. e-mail: 보내낼 경우 300dpi 이상 해상도로 소견을 받은 후 보내 주시기요. 우리문화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우리문화'를 보내드리거나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연합회의 인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 문화원탐방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교감하는 곳  
정선!

\_ 정선문화원





### 정선의, 정선문화원

이곳에는 태고의 신비를 자랑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천년의 소리를 이어오는 정선아리랑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이다. 5일 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장마당이 열리고, 레일바이크와 화암동굴, 봄이면 함백산 철쭉꽃, 여름이면 동강 레프팅과 시원한 계곡의 산림욕이 어울어지는 곳, 가을이면 국내 최대 군락지의 하나인 억새풀이 은백색 물결의 장관을 이루는 민둥산과 오색 단풍이 춤을 추는 가리왕산, 노추산, 태백산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정선이다. 여기에 강원랜드 하이원 리조트를 더하면 가히 4계절 관광과 레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효과가 극대화 되는 곳이다. 2008년 기준 1년에 670만명이 다녀가는 정선, 이러한 정선에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 그곳은 바로 정선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발하여 전승하는 역할과 새로운 문화 창달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열정으로 일하고 있는 정선문화원 유경은 원장과 문화일꾼들이다.

### 유경은 정선문화원장 취임과 고종호 국장의 만남

2008년 4월7일 취임하여 올해로 임기 3년차를 맞이하는 유경은 원장은 오랜 공직생활과 일찍이 정선 향교의 장의를 지낸 향토사학자이자 국사편찬 위원이다. 취임 직후 정선문화원은 '이 고장 문화의 샘터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역의 향토문화를 잘 보존하고 전승하며 이것을 생활문화에 어떻게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며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에 앞장서 왔다. 1여년 동안의 착실히 준비한 프로젝트들은 2009년 3월 공채를 통하여 새롭게 들어온 고종호 국장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하나 꽃피우기 시작했다. 우선적으로 문화를 군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복지로 돌려놓는 일과 지역에 문화 일꾼들이 뛰놀 수 있는 판을 벌이기 위하여 2009년 한 해 동안 61회의 장터 공연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통하여 각 읍·면지역의 소규모 축제를 지원하는 동시에 읍·면단위 분원을 설립 할 기틀을 만들었다. 또한 강원랜드와 함께하

5일 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장마당이 열리고,  
레일바이크와  
화암동굴,  
봄이면  
함백산 철쭉꽃,  
여름이면  
동강 레프팅과  
시원한 계곡의  
산림욕이  
어울어지는 곳,  
가을이면  
국내 최대 군락지의  
하나인 억새풀이  
은백색 물결의  
장관을 이루는  
민둥산과  
오색 단풍이  
춤을 추는 가리왕산,  
노추산, 태백산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바로 정선이다.





대한문화원연합회

는 드림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관내 초등학교 3개교에 예술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공공일자리부분 노인일자리 사업을 어르신 일자리로 전환 예정과 예술교육, 문화재 관리단을 운영하여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가능케 하였다.

그해 6월에는 황성군에서 열린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경연대회에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11월 강원랜드 하이원호텔에서 한국문화원연합회주관으로 열린 제24회 향토사공모전에서 “정선지역에서의 동학운동 양상과 그 의미”라는 논문으로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문화원의 이모저모

한편으로는 회원 관리와 회원들의 함께하는 문화학교, 문화사랑방, 문화원의 날 행사등을 통하여 180여명의 회원을 인구의 1%이상인 500명으로 증강하는 성과를 통하여 군으로부터 2010년 지원보조금이 50%이상 증액되는 3억3천만 원을 보조받게 되었다. 2010년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소규모지역축제 어르신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한 기동성 확보를 위하여 스타렉스11승 승합차를 지원받아 신바람 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지원사업인 어르신 문화학교는 지역의 설화를 토대로 고은님들의 놀이마당과 향토사 대중화사업인 향토기자단 사업을 확보 하였으며,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생활문화전승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국비4천5백만원과 매칭2천7백만원 도합 7천2백만원의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이 물길을 따라 한양으로 전파되었던 과정을 되살려 내며, 그 과정속에서 불러졌던 목도소리, 떼 넘기는 소리, 전산옥 주막과

1. 고한분원 개원 정선군 고한읍에 3월 25일(목) 14:00 고한읍종합복지센터에서 초대 분원장 유미자, 감사 배순희, 오원숙을 포함한 60여명의 회원이 참여 고한분원을 개원하였다.
2. 문화원 차량 전달식 2010년 2월17일 차량 전달식 및 시승회 이를 통하여 찾아가는 문화활동 및 소규모지역축제 등 기동력있는 문화창달활동이 기대된다.

1





2

나룻배에 얽힌 정선아리랑을 무대소리가 아닌 마당으로 돌려놓는 가치 있는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드림플러스 예술강좌는 1개 학교가 추가된 4개 학교에서 미술, 연극, 인형극, 풍물로 이루어진 짜임새 있는 강좌로 진행되며, 어른신들로 구성된 5명의 예절사 선생님들을 활용 관내초등학교 11개교에 예절과 우리 옷 바르게 입기라는 2시간짜리 교육을 통하여 세대 공감 프로젝트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제35회재를 맞이하는 정선아리랑제 기획하고 진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 정선아리랑과 강원의 소리, 정선아리랑과 한민족의 소리를 재조명하는 그리고 오늘날에 그 소리들이 어울어져 만들어내는 새로운 퓨전음악들이 어울어지는 신명나는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정선문화원의 주목 할 일은 9개 읍·면으로 나누어져있는 군 관내에 읍·면단위 분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다.

### 정선문화원의 분원들

이는 그동안 군청 소재지가 있는 그리고 문화원이 위치하고 있는 정선읍지역에 문화원의 역량이 편중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소외감과 문화 복지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기위하여 의욕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업이다.

읍 지역은 40명, 면지역은 30명의 회원 확보와 자체적인 분원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이 끝나면 분원설립의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올 3월 25일 그 첫 성과를 고한읍에서 올리게 되었다.

앞으로도 2010년에 2~3개 지역을 더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2011년에 나머지 지역을 설립하게 되면, 약700명의 회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분원을 거점으로 주민 모두에게 문화 복지를 실현하며 나아가 지방문화원의 역할에 빼놓을수 없는 문화의 계발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에 큰 성과를 기대 할 것이다. 이처럼 많은 사업들을 이끌어 가는대는 무엇보다 유경은 원장의 덕망과 사무국장의 리더쉽도 있었지만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맡은 일을 책임지는 시스템에서 가능한 일이다.

년간 사업계획에 기초한 월간 계획, 주간계획을 작성하고 매주 월요일 아이디 어회의를 통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과제로 놓여져있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완수 할 것인가를 끝없이 고민하는 직원들의 모습 속에서 예향의 고장 정선의 향토문화의 진한 향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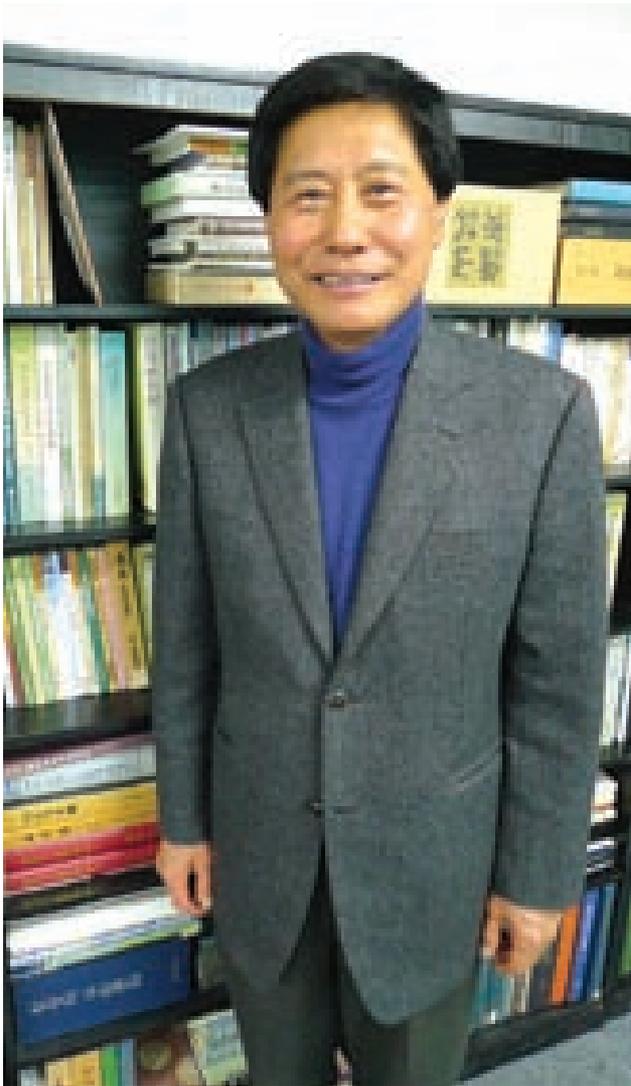
3. 정선문화원 직원들 가운데 유경은 원장, 왼쪽 고종호국장, 왼쪽 이중길아리랑제 팀장 오른쪽 이병운문화사업부장, 함금녀총무팀장, 원순식아리랑제 홍보팀장순

4. 어른신 예절사 초등학교 11개 학교 예절 교육 실시중 세대공감 프로젝트

문화원인물

# 정병용 원장의 무모한 도전과 문화원 적응기

광진문화원 정병용 원장



서울지역의 문화원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한 상황인 경우가 많다. 많은 문화단체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외면받기 때문.

그런 까닭에 서울 지역의 문화원은 어디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앞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대열에서 힘차게 앞으로 나서고 있는 문화원이 있다.

바로 광진문화원이 그곳.

광진문화원은 1996년에 설립된 젊은 문화원이다.

올해 취임한 정병용 광진문화원장은 33년째 광진구 능동으로 이사하고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보냈다. 이곳에서 지낸 세월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크다.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한 편이죠. 이곳저곳 봉사활동을 많이 다녀왔어요. 서른 즈음부터 사회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동부지역의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청소년 선도위원을 했어요.”

지역에서 봉사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경력인데도 정원장 본인은 아주 조금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도 기꺼이.

그런 그가 지역문화의 산실인 문화원으로 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몇 년 전에 문화원 이사로 추천을 받았어요. 그렇게 문화원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여러 단체에서 봉사활동 한 게 자연스럽게 연장된 셈이죠. 그러다가 이렇게 문화원장직까지 맡게 되었죠. 아무래도 이사를 맡고 있던 때와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문화원을 끌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들었어요. 자다가도 생각이 날 정도였어요.

문화원에서 새로운 강좌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문화원에 지금 투자하고 노력한 것이 당장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겠죠. 노력했던 것들이 꼭꼭 담겨 먼 훗날에 빛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해요.”

원장실에서 그는 상석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래도 상석이 있는데 앉기를 권유하니 오히려 손사래를 친다. 문화원장이 권력 있고 높고 으리으리한 자리가 아니란다.

빨리 뛰고, 또 앞서 뛰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역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문화원에 대한 이해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마음이 급한 정원장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 그는 자나깨나 ‘문화원’인 셈이다. 정원장은 아직 지역에서 문화원장보다는 다문화여성과 관련하여 유명하다. 그에 관한 일화를 한 토막 들려주는 정원장이다.

“하루는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에 있는데 한 아가씨가 메모지를 건네주는 거예요. 보니까 ‘수색 가는 버스를 알려주세요’라고 쓰여 있더군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장애인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침 방향이 같아서 같이 타고 가면서 다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깐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시집 온 이주여성이라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너무나 예쁘고 젊은 이런 아가씨들이 예상외로 주변에 많았고, 우리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힘든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문화여성들을 도와봐야겠다는 꿈을 꾸었죠. 곧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 뒤의 건물에 교실을 만들고 5명에 대한 교육으로 시작했어요. 5명은 한 달 사이에 25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 공부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사 공부, 우리 문화 공부도 함께 병행했어요.”

흔히 꿈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어떻게 보면 그 버스 정류장의 여성으로 대표되는 이주여성들의 꿈은, 작지만 조금씩 이뤄지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떠오른 정병용 원장의 생각만으로도. 그것은 무모했고, 어떻게 보면 엉뚱했고 또한 정당했다. 이후 한국어로만 하는 강의가 이주여성들에게 맞지 않는 것을

깨닫고, 각 나라별로 강사를 섭외했다.

그렇게 5명으로 시작된 강의는 첫 해에 60명으로 늘었다. 임시로 만들었던 강의실은 늘어난 인원으로 수용이 불가능해지자 지하에 새로운 터를 만들기도 했다고.

“가만히 보니까 강의에 의욕적인 분들도 결석을 하더라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차비가 없어서 못 오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문화 가정의 실상이었죠.

전부는 아니어도 대다수가 신랑과는 20년이 기본일 정도로 나이 차이가 났고 재혼이거나 결혼 가정인 경우가 많았죠. 폭행에 시달리는 여성들도 많았구요. 경제력은 말해 무엇하겠어요.

그 와중에 강의나 들으러 ‘놀러’ 다니는 아내를, 며느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강의를 내리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또 생각해냈어요.”

몸으로 부딪혀 이룬 꿈으로 회원은 현재 130명에 이른다. 여성들에 대한 배려로 아이들의 놀이터, 수영공간도 갖추었다.

“전부를 바꿔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힘을 조금씩 얻어가는 걸 보며 정말 기뻐요. 그들만의 폐쇄된 공간에서 우리와 더불어 사는 공간으로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제 문화원이다, 라고 말하는 정 원장이다. 개인적으로 하던 일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원이라는 이름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연신 바쁘다.

그는 이제 바쁠 일만 남았다고 한다. 그의 바쁜 몸짓으로, 사람들간의 연대로, 협력으로, 광진문화원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사람이 가진 마음의 힘을 보여준 정병용 광진문화원장의 증거를 총총히 따를 일이다.

문화원 이야기

# 대구달성문화원의 회원관리 운영의 역사



매년 가을에  
달성군에서 개최하던  
제4회 달성충효제(9개 읍·면 대항  
농악·줄다리기와 10개 종목·선수 1,200명)를  
제5회부터 본원에서 인수받아 개최하여  
군 공무원이 하던 심판을 본원 회원들에게  
고급 상하 단복을 구입해 갖춰 입고  
심판을 맡아 행사진행을 주도하니  
회원가입이 줄을 이어  
1,300명의 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985년 11월 2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개원한 대구달성문화원이 초창기라 달성군에서 9개 읍·면에 각 10명씩 90명의 회원을 영입, 월1천원, 연1만2천원의 회비를 책정하였으나 본인 동의도 없이 선정하여 회비납부의 의무를 전혀 이행치 않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면적의 48%로 1만2천원의 회비를 받아 간사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넓은 지역을 순회하였으나 수금이 되지 않아 봉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1988년 5월 1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초대원장이 사임하고 1988년 5월 19일 유신 섬유 공장을 운영하던 2대 하영태 원장이 선출되면서부터 연8천만원, 8년 재임 동안 6억 4천만원을 찬조하여 매년 가을에 달성군에서 개최하던 제4회 달성충효제(9개 읍·면 대항농악·줄다리기와 10개 종목·선수 1,200명)를 제5회부터 본원에서 인수받아 개최하여 군 공무원이 하던 심판을 본원 회원들에게 고급 상하 단복을 구입해 갖춰 입고 심판을 맡아 행사진행을 주도하니 회원가입이 줄을 이어 1,300명의 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서발간 시 우선 배부, 연중행사예 초청, 수련대회(올해 제20회로 11월에 개최 예정)를 통하여 회원 자질향상과 상호친목을 도모하게 하며, 설·추석 명절 때 원장의 섬유공장에서 생산되는 벨벳 천을 선물로 제공하여 정기총회에서 연3만원의 회비를 회원들 스스로 인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9개 읍·면 분원을 설립,  
본원에서 연례행사로 개최하던  
미술실기·서예실기대회와 백일장·회원수련대회를  
각 분원으로 이관 개최하게 함으로써  
분원 회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사기진작으로  
본원 문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였으며,  
문화행사를 각 읍·면 분원 주최로 개최하니  
문화원의 홍보 효과도 배가 되었습니다.





상하여 자진납부, 연3천만원 이상 회비수입이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9일 제5회 회원수련대회에 버스 20대를 대절하여 800명의 참석회원들에게 원장이 푸짐한 음식을 제공, '93대전세계박람회'를 무료 견학을 시켜줬는가 하면, 1994년 12월 5일부터 12월 27일까지 9개 읍·면 분원을 설립, 본원에서 연례행사로 개최하던 미술실기·서예실기대회와 백일장·회원수련대회를 각 분원으로 이관 개최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자기진작으로 본원 문화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하였으며, 문화행사를 각 읍·면 분원 주최로 개최하니 문화원의 홍보 효과도 배가 되었습니다.

본원 문화 사업 중 일부를 9개 읍·면 분원으로 이관하여 개최함에 따라 분원장과 사무장의 역할이 막중하므로 사기양양 차원에서 올해도 5월 28일(금) 제15회 임원·운영위원·사무장 단합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996년 8월 24일 문화관광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받아 매년 10월에 2주간 꽃꽂이 외 3개 과목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2년 9월 3일 2,172㎡(657평) 규모로 착공하여 2004년 3월 4일 달성문화원사가 준공·개관함에 따라 달성문화학교를 개학, 컴퓨터 외 25개

과목을 연중으로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색소폰, 사진, 시인대학, 민요, 한지공예, 사물놀이, 햄동우회, 산악회는 단체를 설립, 회장단을 선출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가입회원의 영입은 본원 회원이라야 자격이 부여되므로 회원 확보와 동호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었습니다.

2010년 3월 현재 회원 505명(임원 16명, 운영위원 110명, 회원 379명)에 연 회비가 원장·운영위원장 각 100만원, 부원장 50만원, 임원·운영위원 각 10만원, 회원 3만원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 회비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며 더욱 발전하는 달성문화원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채한식 달성문화원 사무국장

문화원 이야기

# 40년을 이어온 약속의 길을 찾아서

김천문화원 자매결연 공민관 방문기



“日本國 七尾市 御祓公民館과 韓國 金泉市文化院은 같이 社會教育의 實踐團體同志로서 相互間 教育社會의 文化的 交流을 通하여 兩公民館의 友好親善을 깊히 하는 同時에 人間本來의 精神의 結合에 依하여 日本國과 韓國과의 親善을 促進 識히며 拮차서 世界平和의 貢獻하는 所存일것을 確信하며 여기에 兩公民館이 姉妹公民館으로서 提携할것을 盟約한다.”

## 김천문화원과 미소기 공민관, 자매결연협약서와 굳은 악수

1970년 7월 7일 일본 이시가와현 나나오시 시장실에서 강중구 김천문화원장과 미소기 공민관 오후다고조(奥田幸造) 관장은 자매결연 협약서를 체결하고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김천문화원이 일본 이시가와현 나나오시 미소기 공민관과 자매결연을 맺고 문화교류를 펼쳐온 것이 어언 40년. 이를 기념할 만한 행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연초부터 머리를 떠나지 않던 중 1970년 강중구 원장님과 함께 도일(渡日)했던 송재성 부원장님



예정보다 늦은 도착으로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을 나오오시와  
공민관 관계자들이 걱정되어  
입국장의 대기 행렬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다.  
수속을 마치고 나서니 큰 박수소리와 함께  
한 이름 꽃다발이 달려든다.  
송영호원장님께 꽃다발을 건넨 미소기  
공민관 호리오카 케이고 관장님은  
만면(滿面)에 미소를 머금고  
환영을 뜻을 전했다.



이 작성했던 자매결연 후기(後記)와 자매결연 협약서를 재차 읽으면서 옛날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약속의 길을 다시 밟아보자는 생각이 이번 나오오시 방문의 계기가 되었다. 문화원장님의 결심과 이사회회 보고를 거친 후 먼저 수년 전 김천시에 파견 나와 있을 때 친분을 쌓았던 미야카와 가시코(宮川 佳志子)씨를 통해 우리의 뜻을 전했다. 나오오시와 미소기공민관으로부터 적극적인 환영의 답신이 온 것으로 우리들의 자매결연 40주년 기념을 위한 일본방문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2010년 4월9일 새벽3시, 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 새벽 공기는 차기만 하다. 송영호 문화원장님을 단장으로 임직원과 회원 20명으로 구성된 우리 방문단은 문화원앞에 집결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오전 6시30분 공항에 도착하니 이번 일정을 도와줄 가이드 엄외순 씨가 일행을 맞는다.

### 일본으로 향하여, 그리고 만남

새벽시간임에도 공항은 쉼 없이 분주한데 긴 출국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오르니 9시20분출발 예정이던 비행기는 활주로가 분주해 30여분을 대기한 끝에 10시가 넘어서야 이륙할 수 있었다. 1970년 강중구 문화원장님과 함께 부원장으로서 자매결연식에 참가했던 송재성 부원장님은 “일본 칠미시 공민관과 자매결연을 마치고

돌아와서”란 주제의 보고서의 첫머리에 이렇게 적고 있다. “문화원장 강중구씨와 나는 7월1일 김포공항에서 복잡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오전 9시였다. 기내승객들은 약간 흥분한 기분으로 제각기 이상한 표정들이었다. 잠시후 단조로운 하계(下界)를 내려다보니 모심기 논이 파랗게 경계를 이룬것이 유난히 눈에 띈다. 산봉(山峰)을 넘을 때면 구름이 가려 시계(視界)가 막혀서 답답하였다. 잠시후 육지를 벗어나 광막한 바다만 보일뿐이다” 40년 전의 그 하늘 길을 오늘 우리들이 다시 걷는다. 천지를 구분할 수도 없는 구름 위를 한참동안 날은 비행기는 마침내 아래로 기수를 내리는 듯 싶어 창밖을 내려다보니 바다와 인접한 웅장한 고봉들이 길게 솟아있는데 4월임에도 산정에는 온통 눈을 뒤집어쓰고 있다. 1시간 30여분을 날은 비행기는 당초보다 한참이나 늦은 11시30분이 다되어서야 도야마현의 국제공항인 도야마공항에 도착했다. 예정보다 늦은 도착으로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을 나오오시와 공민관 관계자들이 걱정되어 입국장의 대기 행렬이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다. 수속을 마치고 나서니 큰 박수소리와 함께 한 이름 꽃다발이 달려든다. 송영호원장님께 꽃다발을 건넨 미소기 공민관 호리오카 케이고 관장님은 만면(滿面)에 미소를 머금고 환영을 뜻을 전했다. 공항에는 우리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나오오 시청

차량과 미소기공민관장, 두 분의 부관장, 나나오시 생애학습과장 시 직원 미야카와 가시코 씨 등 4인이 나와 주었다. 1시간 남짓 해안도로를 따라 나나오시로 이동하다가 중간에 일본정식으로 오찬을 한 후 곧장 나나오 시청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차안에서 지난 2개월 여간 팩스를 통해 파트너로서 함께 행사준비를 해온 나나오시 생애학습과 이시카와 너보루(石川 昇)과장과 명함을 주고받으며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등 첫 대면의 소회를 나눌 수 있었다.

### 일본에서 열린 자매결연 40주년 기념식

시청입구에 들어서니 수많은 시청직원들이 입구에서부터 도열해 우리일행에게 박수를 보내는데 다케모토 분페이(武元文平)시장님과 오오바야시 여시마사(大林 吉正) 시의회의장님이 송영호원장님께 환영의 꽃다발을 건넸다. 시청회의실로 자리를 옮기니 나나오시의 주요간부들과 시의회의장, 교육장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들의 나나오시청 방문을 환영하는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나나오시장님과 시의회의장님, 미우라미츠오(三浦光雄)교육장님은 자매도시 김천에 대한 친근함을 표시하며 자매결연 40주년을 축하하며 우리들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했다. 송영호문화원장님은 김천시장님과 김천시의회회장의 서신을 전달하고 따뜻하게 맞아준 나나오시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나나오시와 김천시는 1975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상호 직원을 교환근무 시키고 연례적인 방문과 문화, 예술, 체육, 사회 등 전반적인 교류의 폭을 넓혀왔는데 양 시(市)의 자매결연은 1970년에 맺어진 김천문화원과 미소기공민관의 자매결연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시청 회의실 중앙에는 김천시에서 기증한 농약기 등의 특산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두 도시간의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청을 돌아본 일행은 자매결연 40주년 기념식이 준비되어있는 미소기공민관으로 향했다. 나나오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미소기공민관에 들어서니 수많은 인파가 입구로부터 도열해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우리 차량을 향해 박수를 보내고 송영호 문화원장님께 꽃다발을 건네며 연신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



를 건넨다. 회의실로 들어서니 “烈烈歡迎 金泉文化院”이라고 적힌 전면의 현수막이 우리를 맞이하고 미소기공민관 운영위원과 회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또 박수를 보내준다. 이 자리에서 호리오카 케이고 미소기공민관장님은 40년 전 맺어진 자매결연의 뜻을 계승하고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펼쳐나가는 요지의 환영사를 했고 1968년 공민관 부관장의 자격으로 김천을 방문했다는 초우켄치(長憲二)씨는 당시 강주구문화원장과의 인연을 회고하고 40년간 이어온 양 단체의 교류 역사속으로 추억여행을 시켜주었다. 송영호원장님은 호리오카 케이고 관장님에게 방문기념패를 전달하고 우리의 선배님들이 어려운 한일 관계의 여건속에서도 민간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친선을 위해 개척한 자매결연의 뜻을 존중하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자고 역설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양 단체 임직원회원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한 후 2층에 마련된 다례실에서 차를 나눈 후 공민관 시설을 견학했다. 공민관 한 켠에는 김천문화원과 40년 교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공간을 따로 마련해 두었는데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전달한 기념품과 우편으로 보낸 책자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세심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어 공민관 앞 정원으로 자리를 옮겨 4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수를 했는데 나무는 미소기공민관에서 준비하고 식수 후 세워둘 기념표지는 우리가 준비해 가기로 사전에 조율이 되어 있었다.

수일 전 수종(樹種)에 대하여 우리의 의사를 물어오기

에 알아서 의미있는 나무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선택해두어 우리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다. 송영호원장님과 호리오카관장님이 함께 나무를 심고 표지판을 세웠는데 다음날인 4월10일자 북국신문(北國新聞)에 기념식수 사진과 함께 비중 있게 우리들의 방문소식이 다루어졌다. 기념식을 마친 후 나나오시의 관광명소인 와쿠라온천으로 이동해 숙소인 비완소(美灣莊)호텔에 여장을 풀고 이 호텔 연회장에서 나나오시에서 주최한 환영만찬회에 참석했다. 만찬회장에는 시장, 의장, 시의원, 교육장, 교육위원, 공민관장, 상공인 등 지역의 기관, 단체 인사 4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우리들의 대외 편의를 위해 만찬장에 마련된 각 테이블마다 한국어가 가능한 시직원과 인근 가나자와시의 한국유학생을 배치하는 세심함을 보였다. 다케모토 분폐이 시장님과 오오바야시 시의회의장, 호리오카 관장은 거듭 40주년을 맞은 김천 문화원과 미소기공민관의 자매결연을 축하하고 김천시와 나나오시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한 우호협력을 강조했다. 송영호원장님은 인사에서 따뜻한 환영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40년 전에 맺어진 우호교류에 대한 우리 선배님들의 약속이 끊임없이 지켜지고 이어져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되는한일 관계에서 발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 하자고 강조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 오랫동안 나나오시 공민관연합회장으로 재임하며 양단체간 문화교류에 기여한 다나카센슈(田中選秀) 씨에게 송영호원장님이 감사패를 전달했다. 다나카 센슈 전 회장님은 답사에서 금년 2월말 작고한 김길수 전 문화원장과의 인연을 소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고 감사패 수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히며 양 단체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기원했다. 이어 우리 참석자에 대한 개별적인 소개와 양 단체에서 준비한 축하공연이 있었는데 우리는 김정희회원이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한국 무용을 선보여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고 미소기공민관에서도 전통춤과 민요를 공연했다. 화기에애한 가운데서 만찬을 마친 후 나나오시 공민관연락협의회 부관장님의 폐회사를 끝으로 환영만찬회를 모두 마쳤다.

## 이쉬운 작별과 다짐

공식행사를 모두 마친 후 흥기분한 마음으로 온천욕을 즐긴 후 다음날 일행은 저마다 편안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나나오시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나나오시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일본전역에서 3곳 밖에 없다는 나나오 산성터와 벚꽃축제 준비가 한창인 고마루아마공원, 전통상가가 남아있는 시내와 수산시장을 돌아본 후 초밥집으로 자리를 옮겨 나나오시에서의 마지막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 후 우리일행은 1박2일 동안 편의를 제공해준 나나오시와 공민관 관계자들과의 이쉬운 작별을 뒤로하고 나나오시를 떠나 가나자와로 향했다. 다음날 오사카, 나라, 교토를 경유하는 3박4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일, 부산 김해공항을 통해 오후 5시 김천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많은 크고 작은 약속을 한다. 이번의 일본 나나오시 방문은 40년 전 김천문화원 강중구원장님과 나나오시 미소기공민관 오꾸다고조 관장님 사이의 약속이 동기가 되었고 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양 단체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40년의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다.

2010년 4월9일, 미소기공민관 화단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아 약속의 증표로서 심은 무궁화(無窮花)가 그 이름과 같이 다함이 없는 영원한 아름다운 꽃으로 오래도록 피어나길 기원해 본다.

송기동 김천문화원 사무국장



전고실효은

# 숨겨진 시골길

우리의 길

전고실효은 숨겨진 시골길





2

1. 홍천 살둔에서 문암골로 들어가는 숲속의 산중 20리길.
  2. 은은하고 향긋한 담양 봉서리 대숲길.
  3. 일부러 거칠게 지었다는 살둔산경.
  4. (환경보전지역 무단출입불가) 팻말
  5. 왕피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풍경.
  6. 문암골 가는 길에 만난 거리쟁기길.
- 거리란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일컫는다.

길은  
 애당초 보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도로는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위한  
 것이다.  
 길에는  
 자연의 모든 흔적과  
 무수한 전설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지만, 도로에는  
 시공일자와  
 교통사고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때때로 차를 버리고, 걷고 싶은 길이 있다. 오로지 발바닥으로 흠바닥과 교감하며, 길의 질감을 느끼고 싶은 길이 있다. 인류 문명사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길이라고 했던가.

그러나 공교롭게도 그것은 속도와 물류 기능이 더해진 '도로'가 되면서 자연과 자원을 파괴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다. 기능적으로 길과 도로는 다른 것이다. 길이 태생적이고 자연적인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도로는 인위적이고 문명적인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길은 애당초 보행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도로는 자동차나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을 위한 것이다.

길에는 자연의 모든 흔적과 무수한 전설과 이야기가 깃들어 있지만, 도로에는 시공일자와 교통사고의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어쩐지 길에서는 걸어야 할 것같고, 도로에서는 달려야 할 것같은 기분이 난다.

전통적인 우리의 길이 맨 처음 파괴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침략과 수탈로에 다름아닌 철길과 교통로를 건설하면서부터이다. 물자수송과 침략을 위해서는 되도록 넓고 곧게 도로를 건설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년이나 이어져 온 우리의 길은 몽청몽청 잘려나가거나 일직선으로 뺏은 신작로가 되고 말았다.

새마을운동과 함께 시작된 경제개발시대에 이르러 또한번 우리의 옛길은 대대적인 수난을 당해야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수난의 길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더욱 겨우 남아 있는 시골길은 눈물겹다. 간신히 흘러가는 시골길은 안쓰럽다.

## 1. 인제 마장터 가는 길\_ 숨겨진 마을, 은밀한 산중길

마장터 가는 길은 바위가 갈 수 없는 길이다. 그래서 더욱 마음을

잡아당기는 길. 길은 미시령 '창바우'라는 곳에서 제법 수량 많은 계곡을 건너아 시작된다.

산 사람들은 이 길을 샨령길이라 부른다. 옛날 인제나 원통의 지계꾼들은 감자나 잠곡을 지고 이 샨령길을 넘었고, 고성이나 속초의 마부들은 소금을 싣고 반대쪽을 넘어와 마장터에 이르렀다.

그 옛날 마장터는 난장으로 물물교환을 하던 산중장터였던 셈이다. 마장터라는 이름도 바로 이 곳에 마방과 장터가 있었다는데서 비롯하였다.

곰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무섭도록 적막한 숲길. 신비가 드리운 계곡의 그늘. 내 옆에는 낮게 깔린 적막과 적막을 적시는 계곡과 하늘에 잠긴 나무들, 숨찬 언덕과 평화, 거친 숨소리뿐이다. 내내 계곡을 따



전통적인 우리의  
길이 맨 처음  
파괴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침략과  
수탈로에 다름아닌  
철길과 교통로를  
건설하면서부터이다.  
물자수송과  
침략을 위해서는  
되도록 넓고 곧게  
도로를 건설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천년이나 이어져온  
우리의 길은  
몽청몽청 잘려  
나가거나 일직선으로  
뺨은 신작로가  
되고 말았다.



4



5

라가던 길은 작은샅령에 이르러 비탈진 고개를 넘는다.

이 고개를 넘어가면 드디어 마장터에 이르게 된다. 미시령 '창바우'에서 1시간 남짓 걸어서 당도한 마장터. 설악산 북쪽 한복판에 숨겨진 마을.

분명 이곳의 풍경은 70년대의 낡은 흑백사진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경이다. 마장터에는 두 채의 셋집이 있고, 봄이면 셋집 주변에는 돌배꽃과 산복사꽃이 그림처럼 피어난다.

위낙에 깊은 산중인지라 마장터에는 아직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다. 방에서는 아직도 등잔불을 켜고, 아궁이에서 꺼낸 불씨를 화덕에 담아 거기에 라면을 끓이고 밥을 한다.

분명 이 문명화된 세상에 마장터는 비문명의 방식으로 엄연히 존재한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지층연대 위에 마장터는 존재한다.

## 2. 살둔 지나 문암골 가는 길 숲속의 산중 2리 길

문암산과 맹현봉 사이로 우마차 한 대가 너넉히 다닐 정도의 덜컹이는 비포장길이 숲으로 나 있다.

살둔에서 이십여 리 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적막하고, 변함없이 덜컹거리는 길. 저 산과 들, 숲속의 나무와 풀들은 언제나 변함없이 젊고 싱싱한데, 언젠가 그곳을 지나간 나그네만이 이

렇게 나이를 먹었다.

나는 10년 전보다 한참 느려진 걸음으로 타박타박 그 길을 걸었다. 이십여 리 먼 길이지만, 이 길은 걸으면서 찬찬히 길의 탄력을 느껴야 제격인 길이다.

물소리 새소리 말고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 시오리쫄 계곡을 따라 걷다보면 아담한 시멘트 다리를 두고 길은 세 갈래로 흩어진다. 여기서 다리를 건너가면 문암골이다.

행정구역상 홍천군 내면 울전리 문암동. 마을에는 채 열 가구도 살지 않지만, 마을 중간에는 교회까지 있다.

100여 년의 역사가 깃든 문암교회는 오랜 풍우에 낡은 만큼 주변의 풍경과 행복하게 어울려 있다.

요즘의 교회건물처럼 뽀족한 첨탑이 하늘을 찌르지도 않고, 그 건물이 커서 위압감을 주지도 않는다. 아담하고 소박하게 자연으로 들어가 있다.

이 곳의 종교성은 교회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둘러싼 산과 들에 있는 듯하다.

산과 밭, 나무와 꽃이 교리이고 성자인 것이다. 문암골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골짜기이다.

마을에는 옛날 두메마을에 흔했던 귀틀집도 몇 채 만날 수 있다.

### 3. 제주 중산간 삼나무 목장길: 한국에도 이런 길이!

산은 험하고 바다는 사납다. 옛 사람들이 제주를 두고 표현한 말이다. 이는 아마도 화산섬인 제주가 지형적으로 높은 한라산을 품고 있는 데다 오름이 많고, 언제나 바람이 심해 고요한 바다를 만나기 어려운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말일 터이다.

제주의 중산간은 대부분 목장지대라 할 수 있다. 지도에 표기된 목장만도 10여 개가 넘고 표기되지 않은 목장까지 합치면 20여 개가 넘는 목장이 중산간에 포진해 있다.

이들 목장은 거개가 말목장인데, 이들 말목장의 풍경은 제주 아 니고는 만날 수 없는 독특한 풍경이기도 하다.

특히 목장이 많이 몰려 있는 1112번 도로와 1118번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그리고 좀더 운치있는 목장의 풍경을 감상하는 방법은 주도로를 벗어나 목장의 경계를 따라 들어선 삼 나무길을 따라 천천히 달리거나 트레킹을 즐기는 일이다.

제동목장이나 건영목장 인근에는 정말 영화에나 나올법한 비밀 스런 삼나무길이 숨어 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길의 들머리에서 길의 끝머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삼나무길이 펼쳐진 곳도 있다. 한국에도 이런 길이 있나, 하고 눈을 의심하게 되는 길이 이곳이다.

### 4. 천연하고 은밀한 40리 산중 길

#### 왕피천 왕피리 가는 길

왕피천을 끼고 있는 왕피리는 울진에서 가장 궁벽한 곳으로 통한다. 10년 전만 해도 서면 삼근리에서 왕피리로 넘어가는 박달재는 포장이란 된 원시림 속의 비포장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마을까지 시멘트 포장이 된 산복도로가 이어져 있다. 옛날에는 왕피리가 워낙에 오지 중의 오지여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바람에 결국 빈 마을이 되고 말았다.

이 곳에 다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은 근래의 일이다. 생태농업을 실천하는 생활공동체 한농복구회 사람들이 이 곳으로 집단 이주를 시작하면서 왕피리는 이제 600가구가 넘게 사는 대규모 마을로 변모했다. 왕피리는 접근이 어려울지언정 끝까지 안은 제법 너른 터를 이루고 있어 옛날에도 한천, 임광터, 동수골,



속사, 시목, 뱀발, 햇내, 시리들 등 10여 곳이 넘는 자연마을이 있었다.

본래 왕피리라는 이름은 왕이 피난을 왔던 곳이라고 붙여진 이름이다. 고려 말 공민왕은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 곳 왕피리로 피난을 왔다고 한다.

왕피리 임광터가 바로 임금이 머물던 곳이고, 박달재를 품은 통고산도 공민왕이 통곡을 하며 넘었다고 생겨난 이름이다. 마을길은 왕피천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다. 마을에서 매화리로 넘어가는 40리 비포장길은 지금도 왕피리의 비상로 노릇을 하고 있는데, 이 길은 산비탈의 금강송(황장목) 군락지가 은밀하게 펼쳐진 천연한 길로 남아 있다.



## 5. 은은하고 향긋한 대숲 산책로 담양 봉서리 대숲길

담양하고도 금성면 봉서리 대숲은 최근에 CF와 영화, 드라마의 단골무대가 되어온 곳이다. 30여 년 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이곳의 대숲은 어인 3만여 평에 2천여 그루의 대나무로 뒤덮였다. 봉서리 대숲에 들어서면 영화 <와호장룡>에서나 본 듯한 울창한 대밭 풍경이 펼쳐진다.

수만 평 산자락을 빌려 들어선 수천 그루의 대나무, 바람에 실려 오는 은은한 대나무향을 따라 숲길을 거닐다보면 먹먹한 가슴이 풀리고, 마음이 다 향긋해진다.

이른 아침의 대숲은 사람이 찾지 않아 더욱 호젓하다. 대전면에 자리한 삼인산 대숲도 담양에서는 꽤나 알려진 대숲이다. 드라마 <다모>에서 남녀 주인공이 칼을 겨누고 대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며 '이름다운 결투신'을 펼친 곳이 바로 이곳이다. 봉서리 대숲이 산자락을 따라 비탈지고 굴곡지게 조성돼 있다면, 삼인산 대숲

은 대체로 평지를 이루고 있다. 사람들은 오르막이 없는 이곳의 대숲 산책로에서 느긋하게 죽림욕을 즐기곤 한다.

대나무는 공기 정화능력이 뛰어난 까닭에 대숲을 걷는 것만으로도 폐부를 정화하고, 누적된 심신의 피로를 씻는 효과가 있다.



이용한 시인, 여행작가

# 담안 의 여성 길위의 여성

〈원행을묘정리의계〉의 반차도

1795년(정조 19)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 화성의 현릉원(사도세자 묘)에 행차하는 그림. 길가에 구경하는 여성들이 많아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행차 가운데 휘장 안에 있는 가마에 혜경궁 홍씨가 타고 있다.



## 담장 안의 담, 규방의 풍경

집을 지을 때에 내외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쪽에 거처하며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남자는 함부로 내당에 들지 않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

위의 글은 『예기(禮記)』 「내칙(內則)」 편에 나오는 글로 조선시대 여성 교육서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문구다. 남녀의 공간을 구분 짓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격리하는 장치 곧 '담' 이 되었다.

1894년과 1897년 영국 지리학자로서 조선을 방문했던 이사벨라 비숍은 『KOREA and Her Neighbours』(1898년)라는 책에서 서울 여성들에 대해 하층 여성을 제외한 대부분 여성들은 집의 안뜰에 격리된 채 한 낮의 서울 거리를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자정이 넘어서만 외출이 허용되었고 낮에 외출할 때에는 뚜껑이 덮인 가마를 이용한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 모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조선의 여성상이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여성의 공간이라 부르는 안채는 17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가족의 공동 공간이었다. 제사도 올리고 남녀 구분 없이 온 가족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었다. 내외담 역시 원래부터 안채와 사랑채를 구분하는 담이 아니었다. 그저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담에 불과했다.

그러다가 17세기 중반 이후로 주거 공간에서 남성공간인 사랑채와 여성공간인 안채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내외담도 안팎을 구분하는 담장으로 변해갔다.

그래서 공간이 분리되기 이전인 17세기 후반까지 규방의 풍경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답답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그어놓은 경계 '담' 을 넘어 밖으로 나갔고 여성이 다니던 발자취는 전국 곳곳에 남겨 되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활보하던 길로는 어떤 길이 있었을까?

## 구경 가는 길

조선시대 구경거리가 흔하지 않던 시절에 국왕이나 중국 사신의 행차는 대단한 볼거리였다. 양반이나 하인할 것 없이 모두 길거리로 나와 행렬을 구경하였다.

국왕이나 사신 행차는 한 번에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씩 동원되면서 화려한 의복과 의장을 갖추었으므로 이만한 구경거리도 없었

다. 구경꾼 안에는 여성들도 있었다. 양반 여성들은 거리에 모여 장막을 설치하거나, 누각의 난간에 기대어 구경을 하곤 했다.

여성들이 머무는 의막 앞에는 화려한 채색 휘장이 둘러졌고 여성들은 그 안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소하면서 행렬을 기다렸다.

양반 여성들은 미리 구경하기 좋은 자리를 잡기위해 길가의 작은 집을 빌려 하루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조정에서도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는 길가집을 임시거처로 삼아도 좋다는 허가증을 발행했는데 권세 있는 남성들은 집안 여성들을 위해 이 허가증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일종의 입장권이었던 셈이다.

1537년(중종 32) 3월 9일, 서울 관료 이문건의 집. 이 날은 명나라 사신이 한양으로 들어오므로 임금과 명 사신의 행차가 예정된 날이었다.

부인과 딸은 새벽부터 이 행차를 보기 위해 부산을 떨었다. 부인과 딸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친정집 식구들과 어울려 이는 사람 집으로 달려갔다. 그곳이 행차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날 비가 오는 바람에 명 사신은 한양으로 들어오지 못했고 이튿날 들어온다는 기별이 있었다.

이문건은 부인과 딸을 데리고 집에 오고 싶었지만 구경을 하겠다는 그들을 말릴 수가 없어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날 비가 어느 정도 개자 정오에 명 사신이 한양으로 들어왔다.

이문건 역시 "행차를 구경하니 꿈만 같았"고, 부인과 딸도 이 광경을 구경하다

가 저물녘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구경을 위해 하루밤을 지새우고 돌아온 부인과 딸은 행차를 본 경험을 서로 앞 다투어 자랑하였다.

이상은 조선전기 관료인 이문건(李文健, 1494~1567)의 개인 일기인 『묵재일기(默齋日記)』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 일기에는 부인이 다시 구경하는 일로 친정집에서 자고 오자 이문건이 속상해하는 내용도 더 나온다.

위의 사례처럼 양반 여성들이 구경을 위해 밤을 지새거나 사람들 틈에 끼여 있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관료들은 “남녀가 한데 섞여 있다 보면 실행(失行)이 있을까 우려된다.”면서 구경을 금지하자고 주장했으나 여성들의 구경길을 말릴 수는 없었다.

## 온천가는 길

서울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仁慶宮)이 있었다. 이 궁은 1623년(광해군 15)에 거의 완성되다가 인조반정으로 중단되었다.

그 후 여러 이유로 훼손되거나 철거되었다가 1648년(인조 26) 무렵에는 전각이 대부분 없어지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이 인경궁 근방에 초정(椒井)이라는 온천이 있었는데 인목대비가 자주 행차해 온천을 즐겼다.

1630년(인조 8) 3월, 한양에는 인목대비가 도성 밖으로 나와 구경을 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조정의 관료들도 “옛날에 없던 일이다.”면서 우려를 금치 못했다. 그러자 인조가 직접 나서서 인목대비가 “성에 나아가 구경했다는 말은 실로 거리의 허무맹랑한 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이 소문의 전말은 이러하였다. 인목대비가 지난 가을 초정에서 목욕을 하기 위해 인경궁으로 행차하다가 모화관에서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국왕 일행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런데 인경궁 담장이 성과 가까웠고 성 밖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인목대비는 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고 비·빈(妃嬪)들과 함께 성 위어나와 구경했는데 이것이 외간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이후에도 인목대비는 초정으로 가는 행차를 멈추지 않았고 인조는 초정 근처에 맹수가 나타나지 않도록 훈련도감 군사를 시켜 주변을 수색하도록 조치했다.

왕실의 여성이 온천을 다녔다면 민간에서는 어떠했을까? 1470년(성종 1) 성종은 충청도 온양 온천을 민간에게 개방하였다.

남쪽에 있는 온천탕은 재상 및 양반가 여성들도 와서 목욕하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치로 볼 때 양반가 여성들의 온천행은

조정에서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듯하다. 1563년(명종 18) 광주(廣州)의 어떤 논에서 냉천(冷泉)이 솟아났는데 온천물이라는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마 30여 채가 몰려들었고 여성들이 들에서 노숙하면서 온천물의 효험을 보겠다고 야단법석을 일으켰다.

심지어 나루터를 건너기 위해 서로 먼저 건너겠다고 다투다가 죽은 여성까지 발생하였다.

이 한 바탕 소동으로 결국 그 냉천은 메워지게 되었다. 이후 일반 여성과 온천에 관한 기록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한 번에 30여 채의 가마가 움직이는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여성들의 온천가는 길은 여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공간이 분리되기 이전인 17세기 후반까지 규방의 풍경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답답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그어놓은 경계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갔고 여성이 다니던 전국 곳곳에 남겨 되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활보하던 길로는 어떤 길이 있었을까?

## 친정가는 길

경상도 선산에 사는 양반 노상추(盧尙樞, 1746~1829)는 17세부터 84세까지 자신의 생활을 담은 일기 52책을 남겼다. 그 일기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및 문중·이웃·친구, 하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빼곡하다.

노상추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일찍 죽는 바람에 형수가 27세에 청상과 부가 되었다.

당시 관례대로 형수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가에서 지냈다. 그러면서 형수는 하루거리인 기동(耆洞)에 있는 친정을 왕래하였다. 당시 여성들이 외출할 때에는 혼자 다니지 않고 반드시 가족 중 동행하는 사람이 있었다. 노상추가 쓴 일기에는 형수가 가마나

말(馬)을 이용해 친정으로 왕래하는 모습이 짧막하게 기록되어 있다. 1763년(영조 39) 11월 17일에 형수가 친정으로 갔는데 노상추가 동행하였다. 친정으로 간 형수는 12월 26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이듬해인 1764년 11월 26일에도 형수는 다시 친정 가동으로 향하였다. 당시 노상추의 부인이 병을 앓아 생사를 넘나드는데 형수는 시아버지에게 친정집에 가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렇게 친정으로 간 형수는 노상추 부인이 죽고 장례를 치른 다음인 12월 16일에 집으로 돌아왔다. 노상추는 형수가 친정행을 요청할 때의 정경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형수가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청하는데 아버지가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형수의 요청대로 길 떠날 여장을 준비했다. 오후에 출발했는데 가마를 소에 매었다. 서숙부 윤(潤)이 동행하였다. 1766년에도 형수는 3월 19일에 친정 행차를 하였다.

친정에 있던 형수는 말(馬)이 없어서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노상추 집에서 말을 보내 4월 16일에 돌아왔다. 1768년에도 형수는 1월 20일에 가마를 타고 친정집에 갔다가 2월 18일에 돌아왔다.

이처럼 노상추의 형수는 1년에 한번 씩은 친정에 다녀왔고 보통 한 달 가량을 머물다 왔다. 또 어떤 때에는 친정집에 초상이 나자 서둘러 친정 행차를 했다가 한 달 보름 만에 돌아온 적도 있었다. 18세기 후반 노상추의 형수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의 친정 행차는 드문 일이 아니었다. 노상추의 여동생도 경상도 안동 하회마을로 시집갔는데 1~2년에 한 번씩 친정집을 방문하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여성 성리학자로 알려진 윤지당 임씨(允摯堂任氏, 1721 ~ 1793)의 경우에는 혼인 후 강원도 원주에서 살았는데 둘째 오빠 임성주가 양근 군수로 발령을 받아 한동안 원주 관사에 머문 적도 있었다.

## 길 위의 여성들

“사대부 여성으로서 산간이나 물가에서 놀이 잔치를 하거나, 야제(野祭)나 성황당에서 직접 제사를 지낼 경우에는 모두 곤장 1백 대를 친다.”

위의 규정은 1485년(성종 16) 1월에 공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나오는 내용이다.

여성이 놀러 다니거나 산이나 성황당에서 제사를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위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

그러나 조선시대에 위의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을지 의문이다.

1670년(현종 11)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올 때 가마를 타고 구경하는 부녀자가 거리에 복적거렸다거나, 1727년(영조 3) 청나라 칙사(勅使)를 구경하기 위해 길가에 수많은 양반가 여성들이 있었다는 실록 기사로 보아 여성들이 길 밖으로 나서는 외출은 계속되었다고 생각한다.

1727년(영조 3) 청나라 칙사(勅使)를 구경하기 위해 길가에 수많은 양반가 여성들이 있었다는 실록 기사로 보아 여성들이 길 밖으로 나서는 외출은 계속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쉰(魯迅)은 “길이란 본래부터 있지 않고 지나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것이 곧 길 이 된다.” 고 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금령과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감행했던 각종 외출은 역사의 발자취가 되어 오늘날 현대 여성의 ‘길’ 이 되었다.

조선시대 길 위에 있던 여성들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졌을지 의문이다.

1670년(현종 11) 청나라 사신이 서울에 들어올 때 가마를 타고 구경하는 부녀자가 거리에 복적거렸다거나, 1727년(영조 3) 청나라 칙사(勅使)를 구경하기 위해 길가에 수많은 양반가 여성들이 있었다는 실록 기사로 보아 여성들이 길 밖으로 나서는 외출은 계속되었다고 생각한다.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루쉰(魯迅)은 “길이란 본래부터 있지 않고 지나는 사람이 많다 보면 그것이 곧 길 이 된다.” 고 했다.

조선시대 여성들이 금령과 사회적 비난을 무릅쓰고 감행했던 각종 외출은 역사의 발자취가 되어 오늘날 현대 여성의 ‘길’ 이 되었다.

조선시대 길 위에 있던 여성들의 존재가 역사적으로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 전공

우리의 길

조선시대의 주막이야기

여어, 이제 그만 걷고

주막에 들리세

조선시대의 주막이야기



### 예전의 장거리 이동은

지금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도로와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은 평탄치 않고 좁은데다가

뜻하지 않은 장애로 발이 묶이는 일도 자주 있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아늑한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폭염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겨울에는 수염에 얼음 알갱이가 달린 상태로

강행군을 하다가 감기 몸살을 앓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 장거리 이동의 옛모습

지금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먼 길을 오고 갔다. 관리들은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과 지방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다.

양반들은 과거를 보러, 일가 제사에 참석하러 먼 길을 다녔다. 평민들은 당번 차례가 되면 몇 달 동안 군대에 근무하기 위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군영으로 올라갔다가 근무를 마치고 나면 고향 집으로 돌아왔다.

노비들의 경우에도 서울 각사(各司)에 소속된 공노비는 당번 차례가 되면 입역(立役)을 위해 서울을 오르내렸고, 사노비는 먼길을 오가면서 물건이나 편지를 전하는 심부름을 해야 했다. 보부상들은 등짐, 봇짐을 짊어지고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녔다.

그런데 예전의 장거리 이동은 지금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도로와 교통수단, 숙박시설 등이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길은 평탄치 않고 좁은데다가 뜻하지 않은 장애로 발이 묶이는 일도 자주 있었다.

지금처럼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아늑한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름에는 폭염에 시달리며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겨울에는 수염에 얼음 알갱이가 달린 상태로 강행군을 하다가 감기 몸살을 앓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거친 노동으로 단련된 종들도 여러 날을 짐을 메고 걷다가 종종 병이 나서 눕게 되면 주인도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었다.

말은 종종 발을 절기도 하고, 오래도록 주인을 태우고 다니다가 등기축이 벗겨져 괴로워했고, 때로는 빗길에 미끄러져 주인과 짐

보따리를 진흙 바다에 팽개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길을 가다 멧돼지가 튀어나와 말이 놀리는 바람에 말 등에서 굴러 떨어져 어깨나 팔을 다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동 속도는 느려서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그러다 보니 여행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었다.

### 걸어서 걸어서

본래 『경국대전』에서는 외방 도로에는 이정표로 리수(里數)와 지명을 새긴 후(垓: 이정표)를 세워놓게 하되, 10리마다 소후(小垓)를 세우고 30리마다 대후(大垓)를 세우고 역을 둔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의 장승은 동구(洞口)에 세워 역귀(疲鬼)와 잡신의 침입을 막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였지만 본래는 이정표였다. 초기 장승에는 이웃 고을까지의 거리를 써 놓은 것들이 종종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이정표 역할을 하던 것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장승이란 것도 후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바뀌어 등장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 30리마다 역을 두는가? 예전에는 하루에 가는 거리, 1일정(日程)을 3식(息)으로 하고 1식은 30리로 정했는데 ‘식(息)’이란 쉬는 뜻으로 말 그대로 30리마다 한 번 쉬라는 것이다. 따라서 통상 하루에 세 번 쉬면서 90리를 갔던 셈이다.

서울에서 인천, 파주, 용인이 80리였으니 그보다는 약간 멀고 포천이 100리였으니 그보다는 조금 가까운 셈이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10리는 지금의 10리와

는 조금 다르다.

지금의 10리는 통상 4킬로미터로 부르는데 정확히는 3.927킬로미터이다. 그런데 이 단위는 1909년에 척관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등장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대략 4.5킬로미터 정도였다. 그러므로 예전의 90리는 대략 40.5킬로미터로서 지금의 리로 계산하면 100리가 약간 넘는 거리였다.

18세기 영조 때 사람 황윤석은 전라도 흥덕(현 고창)에서 서울까지 580리 거리를 7일을 걸려 올라갔다. 그러므로 전라도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 불일을 마치고 오려면 하루만에 일을 보고 돌아온다고 해도 꼬박 보름이 걸리는 셈이다.

그 보름 동안은 집을 떠나 객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다. 먼 길을 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이 먹고 자는 일인데, 그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이 주막이었다.

### 조선 초기의 여관, 역과 원

조선 초기에 사람들이 여행길에 먹고 잘 수 있는 곳으로는 역(驛)이 있고 원(院)이 있었다. 원래 역과 원은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숙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던 시설이었다. 역은 널리 알려져 있듯이 역마를 관리하는 곳으로서 30리마다 두게 되어 있었고, 원도 여기저기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원은 본래 고려시대에 대개 절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로서 때로는 행려병자를 치료하기도 하고, 빈민구제사업도 했던 다양한 목적의 시설물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불교가 탄압 받으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숙박업소로 바뀌었고 그 관리의 대개 주변 사찰의 승려에게 맡겨졌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넉넉히 받지 못해 땀마누나 마실 물 밖에 제공하지 못하는 시설물로 영락하고 말았다.

그 후로는 관리자도 없이 방치되었다가 이미 18세기 이전에 거의 사라져 버렸다. 지금은 전국의 여기저기에 퇴계원, 혜음원, 인덕원, 다락원 등에 이름으로만 남아 있다.

역은 관원들만이 이용하는 곳이었고 원은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은 주막이었다.

주막은 술막이라고도 하고 술막과 음이 비슷한 숯막이라고도 불러 한자로는 탄막(炭幕)이라고 썼다. 그 밖에도 점(店), 점막(店幕), 여점(旅店)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

그런데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주막이 흔치 않았다. 16세기 말 오희문(吳熙文)은 전라도, 충청도 일대를 70일간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주막에 머문 적이 없었다.

그는 일가친척이나 아는 사람의 종의 집, 일반 백성의 집, 평소 알고 지내던 양반 집을 찾아다니며 잠자리를 해결했다.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종의 집이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양반의 집에서는 한 번도 잔 일이 없다.

### 메주냄새와 벌레가 꼬물대던 주막

그러다가 대로 주변에 나루터나 산기슭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막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주막에





서는 여행객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잠을 잘 방을 내어주었다. 여행객이 끌고 온 말은 마구간에 채우고 말먹이로 꼴을 주었다.

하지만 초기의 주막에서 더 이상의 것을 기대할 수는 없었다. 방은 진흙을 바른 흙바닥에 장판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자리를 깔았고 벽에는 물론 도배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것은 특히 주막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일반 백성들의 집이 거의 모두 그러했다. 19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을 다녀갔던 영국의 지리학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의 주막이 보통 여염집과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한다. 방은 좁아서 그저 1평을 약간 넘었고 커도 채 3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비좁은 방 안에서 때로는 대여섯 명이 서로 영켜서 자야하기도 했다. 방구석에는 메주를 띄우느라 야릇한 냄새가 나고 바닥에 깔린 거적자리를 아침에 주인이 털어 내면 자욱한 먼지 속에서 꼬물거리는 벌레가 보이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요나 이불은 본래 손님이 갖고 다니는 것이었다. 주막에서 제공되는 침구는 나무토막을 네모나게 잘라 만든 목침이 전부였다. 주막이 생겨난 초기에는 손님이 밥 지을 쌀을 내어놓으면 주막 주인이 밥을 지어주었고 반찬은 자신이 갖고 다녀야 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애용된 반찬이 소금에 절여 말린 생선이었다. 조기, 청어, 민어 따위 반 토막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했다. 숙종 때 박두세가 쓴 소설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는 1678년에 서울에 과거보러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산의 한 주막 집에 묵게 된 과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서도 주인공은 주막에 도착해서는 저녁이 되어 밥을 먹을 때가 되자 밥

역은 관원들만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며, 일반 사람들이 이용했던 것은 주막이었다.

주막은 술막이라고도 하고 술막과 음이비슷한 숯막이라고도 불리 한자로는 탄막(炭幕)이라고 썼다. 그 밖에도 점(店), 점막(店幕), 여점(旅店) 등 야박(野泊)으로도 불렸다.

지를 쌀과 함께 반찬으로 장과 소금에 절여 말린 청어를 꺼냈다. 1696년에 박만정(朴萬鼎)이 황해도 암행어사로 파견될 때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박만정이 호조에서 행자(行資)로 받은 물목에는 무명 네 필, 쌀 다섯 말, 콩 다섯 말, 민어와 굴비 세 두름이 들어 있었다. 주막을 찾기 어려웠고, 찾더라도 밥과 반찬이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 변모해가는 주막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대략 18세기쯤이었다. 17세기부터는 교통의 요충지에 주막이 하나둘씩 생기면서 여행길의 불편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예전에는 돈이 통용되지 않아 대개는 현물을 갖고 다니고 때로는 피륙으로 돈을 대신했지만 이때부터 돈이 부분적으로 통용되면서 그 불편도 차츰 해소되었다.

그러다가 18세기에는 여행객들이 어느 정도 오가는 어지간한 곳에는 주막이 점차 늘어나 주막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주막촌도 형성되었다.



18세기에 황윤석이 흥덕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에는 군데군데 있는 점막(店幕)에서 잠을 잘 수 있었다. 이런 주막들은 삼거리, 사거리 등의 교차로나, 고개를 넘기 전의 산기슭이나, 또는 강이나 하천의 나루터 주변에 중점적으로 생겨났다. 주막에서 연가(煙價)라고 부르는 숙박비를 내면 반찬이 차려진 밥상과 잠자리를 제공 받을 수 있었고, 말은 마구간에서 꼴을 먹을 수 있었다.

숙식비 연가는 사람과 말을 따로 받았는데 사람의 연가나 말의 연가는 대개 같았다.

주막에서 식사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물론 주막에 여행객의 취향과 입맛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상차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저 밥, 국, 김치에 간단한 반찬 한두 가지가 전부였다. 19세기에는 사정이 어느 정도 나아졌다.

돈을 주면 주막에서 국수를 사먹을 수도 있고, 밥, 국, 김치는 물론이고 닭고기와 달걀과 각종 나물, 미역 무침 따위를 사먹을 수 있었으며, 때로는 닭보다도 더 싼 평을 살 수도 있었다고 한다.

## 서양인들의 눈을 통해 본 주막의 모습

주막이 안락한 곳은 아니었지만 난방은 꽤 여유로웠다. 솔가지, 마른 풀, 말똥이나 쇠똥 말린 것을 모아두었다가 아궁이의 불을 때었는데 방바닥이 뜨거울 정도로 때어 주었다.

어찌나 뜨겁게 때었는지, 당시 서양인들의 여행기를 읽어보면 방안의 메주냄새, 발 냄새, 특유의 말똥 냄새 등과 어울려 뜨거운 열기가 치밀어 잠을 이루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한다.

너무 더워서 비숍이 간간이 온도계로 방안 온도를 재어보았더니 통상 33도에서 심하게는 38도까지도 올라갔다고 한다. 그래서 1904년에 한국을 찾았던 스



△ 이인상, 이인상의 '유천점봉로도(柳川店蓬樓圖)'의 주막  
\*개인 소장

◁ 김홍도, 김홍도의 '주막'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웨텐의 기자 아손 크렙스트는 한국 사람들은 밤에는 펄펄 끓는 방바닥 위에서 뻥처럼 구워지는 것이 아주 습관이 되었다고 하기도 했다. 그래도 뜨거운 방바닥에 등을 지지는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그 안에서 코를 골며 단잠을 잘도 잤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 익숙지 않은 서양인들은 질식할 것 같은 열기와 냄새에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뜯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아무리 더위도 문을 열어놓고 잘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호랑이가 방으로 뛰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잠을 자는 주막이 아니라 밥만 먹는 주막의 모습은 18세기의 김홍도나 김득신의 풍속화에 단편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림은 대개 거의 비슷한 풍경을 그리고 있는데 아이 하나를 곁에 끼고 있는 과부 주모가 부뚜막에 솥 하나를 걸어놓고 국밥을 팔고 있고, 손님은 그 앞의 땅바닥에 자리를 펴고 주저앉아 소반에 차려진 밥을 먹거나, 아니면 솥을 걸어 놓은 부뚜막 앞에 그대로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다.

어차피 예전의 여행은 즐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그저 일을 위한

장거리 이동이었다.

예전에 금강산 구경과 같은 여행을 즐기는 양반들은 지방의 이는 수령이나 양반과 연락이 되어 이는 사람 집에서 밥을 먹고 이는 사람 집에서 잠을 잤지 주막에서 잠을 자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은 어차피 안락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럴 필요도 절실히 느끼지 않았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는데 통상 보름이 걸렸는데 보름 동안 안락한 시설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려면 그 비용이 엄청나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연식 서울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 성문학과 외설시비에 얽힌 책 이야기

책 수집가  
안정웅의  
오거지서(五車之書)

옛날 우리 선조들의 혼례식에는 식이 끝난 후 집에서 첫날밤을 치룰 때 문창호지를 뚫어서 훑쳐보던 풍습이 있었다.

서양에서도 유형은 틀리지만 엿보기가 있었다. 18세기 영국의 여학교에는 '구멍 엿보기'로 관음증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여학교에서는 체벌할 때 손과 발을 양말로 묶어 고정시킨 다음 책상에 엮드리게 하고 엉덩이를 벗기고 회초리로 매질을 했다. 여학생은 고통으로 신음소리를 내며 체벌을 감내 했는데, 체벌실의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다만 이 구멍을 통해 학교에 거액의 기부금을 낸 은행가나 사업가 그리고 귀족들만이 은밀히 여학생들의 풋풋하고 탐스러운 엉덩이를 마음껏 감상했다고 한다.

이처럼 성(性)에 대한 호기심은 인간의 본능증의 하나로 특히 성에 대한 것은 쾌락적 본능으로 이것을 억압한다는 것은 동서금고의 사례를 보더라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지금 필자와 같은 50대 후반 어른

들도 누구나 한번쯤 학창시절에 음란서적을 책상 밑에 숨겨놓고 선생님한테 들킬까봐 마음 졸이면서 읽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 당시 책 한권을 갖고 반 학생 전체가 돌려 본 인기 있는 책들은 <고금소총> 순수문학으로 문단활동을 하다가 50년대 말 통속소설을 쓴 방인근 선생의 이름을 도용하여 방인근 작으로 낸 <벌레먹은 장미>, <꿀단지>, <동굴초> 등이다.

이와 같이 인간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류의 공통적인 관심사이자 인간의 잠재된 욕망의 하나이다. 인간은 언제부터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자손의 생산을 목적으로 한 생식으로서의 성 이외에 쾌락으로서의 성을 향유하기 시작했다. 생식이외의 성 에로티시즘(eroticism)이야말로 다른 동물들의 성과 차별되는 인간만이 갖는 특성이었고 이런 특성들은 성문학(性文學)을 탄생시켰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성(sex)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성은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뿐만 아니라 사회가 각각의 남녀에게 기대하는 성의 역할, 성적매력, 성충동, 성에 대상, 생식행위, 성교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광의의 의미의 성과 구별되는 개념이 섹슈얼리티(sexuality)와 젠더(gender)이다.

우선 섹슈얼리티는 인간의 성행위(sexual behavior)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간의 성을 추상화 시킨 개념이다. 즉 섹슈얼리티라는 것은 인간의 성에 관한 감정, 사상, 행동 등과 관련되어 있는 복잡한 잠재능력으로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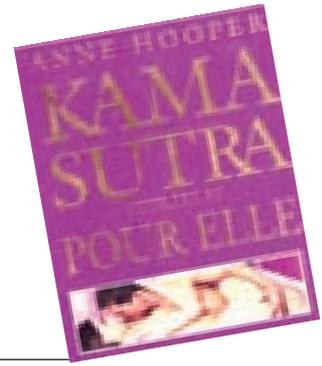
한편 젠더(gender)는 문화의 영향으로 파생되는 남녀의 행동차이를 의미하는데 생물학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성적 정체성(gender identity)이나 성역할에 따라서 행동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섹슈얼리티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포르노그래피(pornography)이다.

포르노그래피는 그리스어의 창녀(pomoi)와 문서(graphos)의 합성어로 포르노라고 약칭하기도 하는데 주로 창녀에 관하여 쓰여진 것을 뜻하는 말로 외설적인 문학을 지칭하게 되었다.

성문학에서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호기심을 일으키는 외설문학은 책 수집에서도 좋은 대상이 된다. 필자도 일명 빨간책이라고도 불리는 음란서적에 관심을 갖고 수집하여 상당량의 책을 갖고 있다.

이중에서 음란서적은 아니지만 고대 동양사회에서 성의 텍스트로 일컫는 책들과 우리나라에서 50년대 이후 외설로 문제가 되었던 책들에 대해 얘기 하고자 한다. 고대 동양사회에는 성을 주제로 한 책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에서 주로 규방에서 사용하던 성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도의 <까마수뜨라>와 중국의 <소녀경> 일본의<의심방>이다.

인도의 <까마수뜨라>는 기원전 2000여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성 텍스트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까마수뜨라>는 독신인 스님이 성애의 의미와 성애술에 관한 선인들의 지혜를 집대성한 것이다.



작가인 비치이나 스님이 책에서 그 저작동기를 밝히고 있듯이 이 책은 단순히 성적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르마(美德), 아르타(財物), 카마(관능적 쾌락)에 관한 지혜를 깨닫고 그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인도의 <까마수뜨라>가 성애와 종교적 수행을 연결시킨 텍스트라면, 중국의 <소녀경>은 성과 의학을 연결시킨 텍스트라 볼 수 있다.

<소녀경>은 도교의 자연주의 사상과 고대 중국의학을 토대로 쓰여진 성에 관한 철학서이자 성의학서이다.

<소녀경>의 궁극적 지향점은 쾌락과 동시에 건강과 장생의 추구이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법이 바로 방중술이다.

<소녀경>에 의하면 남녀의 결합이란 하늘과 땅의 결합처럼 매우 신성한 것이며, 그 신성한 남녀 교접의 핵심은 사정의 억제이다. 이 법도를 잘 실행하게 되면 성행위를 통한 쾌락은 물론 <소녀경>이 추구하는 장수와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녀경>은 방중술의 비법을 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적으로 동양 의학과 방중술을 총망라하여 만든 성에 대한 탁월한 저서이다. 일본의 <의심방(醫心方)>도 성과 의학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성의학서이다. <의심방>에는 성기를 지칭하는 용어만도 200여 가지 넘게 나열되어 있어 성에 관한 일본인의 관심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동양적 성관련 책들은 성을 종교적으로 결부시키거나 의학과 결합시킴으로써 건강하게 성을 즐기도록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용 텍스트들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 텍스트는 아니지만 설화집인 <고금소총>이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고금소총>은 민간에 전해오는 우스개소리들을 여러 사람들이 각각 모아서 엮은 소위 문헌소화(文獻笑話)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편찬연대는 조선조 후기인 18~19세기로 추정된다. <고금소총>은 본래 한문으로 쓰여 졌으나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읽히게 되면서 한글로 옮겨 놓은 언문판(諺文版) <고금소총>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즉 비외설담과 외설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바보나 바보스러운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과 슬기와 재치가 곁들여진 해학적인 이야기이며 후자는 음담패설인데 그 등장인물이 매우 다양하여 위로는 재상, 학자, 벼슬아치로부터 아래로는 무당, 기생, 노비까지 거의 모든 신분의 인물들이 총망라 되어 있는 점이 흥미롭다.

<고금소총>은 선비들이 공부하다가 졸리면 잠시잠시 이런 책을 보면서 졸음을 쫓기도 했던 거 같다. 50년대 이후 책으로 출판되어 외설논란이 일어난 작품 중 대



표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1954년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이다. 이 소설이 발표되자 성윤리 논란이 거세게 일어났는데 사교춤에 빠진 교수부인이 젊은 대학생과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도 타이피스트와 염문을 뿌린다는 줄거리를 용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에서 불륜은 정신적인 것이 아닌 육체적·성적관계를 의미하는데, 작가는 처음부터 정신적인 것이 아닌 육체적·성적 관계를 집중적으로 제시했다. 그래서 자유부인으로 불리는 교수의

부인은 처음부터 육체적인 성관계에 집착하는 여인으로 묘사되었다. 당시로서는 인정될 수 없는 용납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익숙하지 않은 주제와 내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자유부인>은 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부인>의 불륜을 문학의 소재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자유부인>은 사실 한국대중 문학의 통속성을 자리매김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요즘 드라마,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불륜이라는 소재는 대중문학에 있어서 이미 하나의 도식이 되어 버렸다. 내가하면 사랑,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말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대중문학의 통속성이다. 하나의 틀이 되어 소재적 차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 뻔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내용 그러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감동을 주는 문학이 바로 대중문학이 가지고 있는 통속성이라 하겠다. 한국사회에서 음란외설의 개념이 구체화 된 것은 1969년 검찰이 소설(반노)가 음란물에 해당한다며 저자인 염재만을 기소하고 1심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부터였다.

소설(반노)는 경건한 생활을 바탕으로 초아적인 삶을 추구하는 진두라는 남성과 성에 얽매인 채 오직 그 속에서만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홍이라는 여인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반노>는 제목이 말해주듯 복종의 사슬을 끊고 인간의 고차원적인 세계, 즉 제2의 자아발견을 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1970년 6월 항소심 재판부는 <반노>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번엔 검찰이 상고했다. 이후 <반노>는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을 오가는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마침내 1975년 12월9일 대법원은 무죄 선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음란의 정의를 “과도하게 성욕을 자극하거나 정서적인 성적 정서를 크게 해칠 정도로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묘사”로 규정하면서 <반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6년에 걸친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고 <반노>는 우리에게 창작의 자유가 어디까지 인가라는 문제에 물음을 던지며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성을 주제로 한 문학이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는 데에는 인간 본심의 성적욕구가 사회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92년 출간된 마광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와 1996년 출간된 장정일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음란성에 대해 건전한 성풍속내지 성도덕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성을 인정한 작품들이다. 결국 예술이나 외설이나 의 판단기준은 성이 문학적으로 승화되었거나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또 이 말처럼 모호한 것도 없다.

앞의 작품들이 픽션(fiction)이라면 이에 반해 충격적이고도 과감한 개인적인 성 체험을 낱낱이 고백한 이야기인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 싶다>는 1999년 출간되어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연기자 서갑숙의 자전 에세이다. 여성의 성 노출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정공방으로 까지 이어진 만큼 저자의 충격적인 성에 관한 이력이 실려 있다.

성에 관한 체험은 은밀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이다. 따라서 활자로 표현이 되면 그만큼 대중에 관심을 갖게 된다. 위와 같이 예술에서의 외설의 한계처럼 가능하기 어려운 것은 드물다 하겠다. 이것은 예술에 있어서 무한의 표현의 자유와 그 표현이 어느 정도 사회의 공공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법과의 충돌인 만큼 두 쪽이 다 팽팽히 맞서게 되어 사회의 커다란 관심거리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음란외설에 대한 금과옥조의 객관적인 기준이란 있을 수 없다.

다만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기준도 바뀌게 마련이며 창작 표현의 자유와 사회통념이 충돌할 때 대체로 열린사회 일수록 전자에 더 무게중심을 두려는 경향이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다시 말해 윤리나 도덕은 시대에 따라 변하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이 있게 마련이다. 그 규범을 파괴하는 것은 개인에게든 사회에든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 포르노그래피가 산업화되면서 무차별하게 남발되자 포르노그래피는 성범죄의 온상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어디까지인가 답이 없는 한 창작표현의 자유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자.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독자적인 성규범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성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회적 금기를 어긴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안정웅 성결대학교 객원교수



## 훨훨 나비가 되어 춤추어라 빙빙 벌이 되어 돌아라

안성남사당 바우덕이풍물단

예나 지금이나 그들은 참 많이도 돌아다닌다.  
그것은 그들의 숙명이면서 사명이기도 하다.  
그리고 생존이며 생명이다.

남사당이 무엇인가?

19세기 이전에 있어서 서민층의 생활군단에서 자연발생적 또는 자연발 전적으로 생성된 민중놀이집단을 일컫는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집 단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였던 지배계층이 주관했던 관노, 관원놀이와는 달리 그 유지와 구성이 어려웠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심우성, 『남사당패 연구』

참 멋있게 설명되어 있다. 오래된 골동품처럼 이제야 귀하게 여기 는 듯 좀 씩씩하다. (그렇다고 대학자이신 심우성 선생님의 글을 비꼬거나 반박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바이다.)

‘남사당’, 그들은 참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남사당하면 몇 년 전 천만의 관객이 찾은 영화 ‘왕의 남자’ 를 기억한다. 그 이전엔 교과서 한 귀퉁이에 오래된 낫그릇처럼 먼지 덮여있는 그저 낡은 우리 것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찾아오



‘남사당’ 그들은 참 힘들었을 것이다. 우리는 남사당하면 몇 년 전 친민의 관객이 찾은 영화 ‘영의 남자’를 기억한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들 찾아오신다. 그 이전엔 교과서 한 귀퉁이에 오래된 듯 그릇처럼 먼지 덮여있는 그저 낡은 우리 것에 지나지 않았었는데…….

신다.

나이 지긋이 드신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최첨단 IT를 연구하는 삼성, LG맨들, 강호동의 스타킹, 워싱턴 대학의 교수님, 각종 여행 잡지, 신문사, 방송사, 게다가 외국관광객까지. 찾아다니지 않아도 참 다양한 분들이 있어서 찾아와서 무지하게 귀찮게 한다. 사실 즐겁다. 우리를 좋아해 주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왜 이제야 찾아오시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란 정말 ‘우리’다. 남사당 그들 자신과 그리고 남사당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우리는 가끔 집에서 무엇인가 애타게 찾을 때가 있다. 돈도 아니고 핸드폰도 아니고 옷도 아닌 그저 하찮은 어떤 작은 물건을 우리는 애타게 찾을 때가 있다.

모든 서랍을 뒤지고 히물며 옆드려서 소파 밑을 찾아댄다. 그리고 먼지만 가득한 연필만 나오면 한 숨 쉬고,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어디 구석에선가 나타나면 철 지난 옷 속에서 찾은 비상금보다 더 흐뭇해한다. 그리고 그제서야 안도하며 잘 보관한다.

우리는 참 안타까운 역사를 가진 안타까운 민족이다. 그 귀한 것을 하찮게 다 버려냈으니.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아마 다들 아실 것이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하고야 만다. 문화재 보호법이 바로 그것이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재를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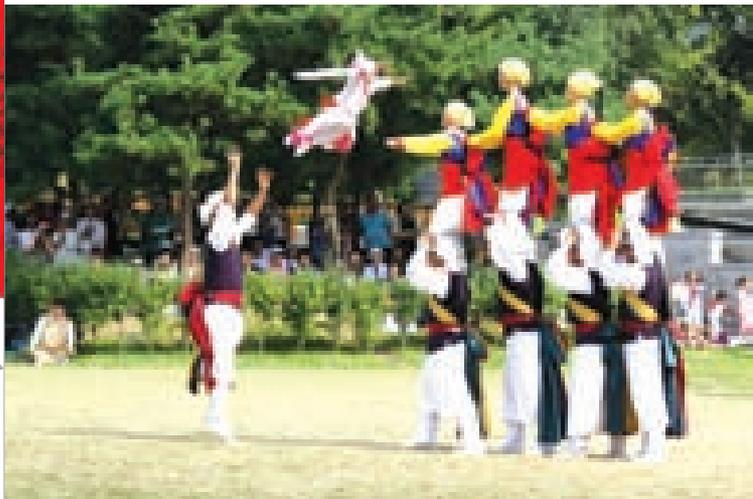
제6조(중요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는 나중에 소파 밑을 뒤질 것이 분명하다. 그 땀 이미 늦을터.

뽕 소리를 하려고 서두가 이렇게 긴 것인가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성시립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입니다.’ 뽕가 이리도 이름이 긴지. 차근차근 풀어보자.

## 첫 번째로 ‘안성’

안성은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평택, 북동





쪽으로는 이천시, 남쪽으로는 천안, 북쪽으로는 용인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도로로는 평택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38국도 4차선도로와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 동쪽으로는 중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다. 인구는 177,673명. 역사적으로 충청도였다가 경기도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교통의 요충지로 사람들이 북적대는 안성장터와 안성맞춤으로 유명한 곳. 그러나 아마도 많은 율패와 상인, 거간꾼, 그리고 놀이패 광대가 많았을 것이다. 요즘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보면 행사도 많이 하고 공짜 먹을거리도 많으니 예나 지금이나 시장엔 불거리 먹을거리가 많은 게 분명하다. 과거 일반 민중들의 대형 오락실이 바로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이 유명했던 안성!



## 두 번째로 '시립'

국립(國立), 도립(道立), 시립(市立), 군립(郡立), 요즘은 구립(區立)도 있다. 한자를 보면 나라에서 세우다, 도에서 세우다, 시에서 세우다. 저희는 시에서 세운 단체로,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시민의 힘(세금)으로 만들어졌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그 귀한 것을 하찮게 다 버려졌으니, 결국 먼지만 많이 쌓이고 만신창이가 되어서 안성남사당풍물놀이보존회를 기반으로 2002년 5월 14일 월드컵의 함성이 커지기 바로 직전 안성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

## 세 번째는 '남사당'

남사당(男寺黨)은 한자에서 보듯이 정치적 정당은 아니다. 남자로 구성된 사찰과 조금 연관되어 있는 집단이다. 여자로 구성되어 있는 사당패나 사찰과의 이해관계로 만들어진 걸림패와는 성격이 다른 집단으로 순수한(?) 재주와 예능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떠돌이 예술단체이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 많은 이해관계는 존재했을 터, 이정도면 순수한 게 맞다.



많이 배웠을 것이다.  
한국 유일의 인형극 [탈미], 사실 서산 박첨지놀음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남사당 인형극을 보고 흥내 낸 수준으로 봐야 할 듯 싶다. 처첩간의 갈등에서 보듯이 예나 지금이나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 떳떳이 성기까지 드러내고 발가벗은 흥동지의 화려한 활동은 민중의 개방적 자신감을 표현한다. 예나 지금이나 윗분들은 숨기는 것이 많았나 보다. 결국 다 들통나지만…….

아마도 다음에 설명된 바우덕이가 여성이듯이 간혹 여성들도 있었을 것으로 유추된다. 뜨네기 재주꾼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들도 있었고 또한 집단이 움직이는데 여성의 손길이 꼭 필요했으니 여성들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잠깐 남사당은 과연 어떤 놀이와 재주로 민중들의 최고 인기 연예인이 됐는지 살펴보자.

남사당 놀이 전체에 밑 근간을 이루는 [풍물놀이], 아마도 그들의 연주 실력은 마을의 두레꾼(아마추어)들 보다는 실력이 월등했을 것이다.

현 안성남사당의 최고 어른사인 김기복 꼭두쇠도 두레패 출신으로 마지막 남사당이라 불리는 이원보패에서 기예를 연마하고 활동도 같이 했으니 놀기 좋아하는 지역의 아마추어 풍물꾼들이 눈으로

민중들을 대신해서 정치와 종교의 부조리를 풍자하는 탈놀이 [덧뵈기], 결만 보고 판단하는 잘못된 시각과 말뚝이라는 하인한테 당하는 양반의 어수룩함, 젊은 여자에게 반해서 정신 못 차리는 중을 혼내는 민중의 슈퍼맨 취발이, 다양한 민중들의 진보적 세계관이 가득 담긴 해학과 풍자극이다.

대접, 낫대야, 체 등의 일반 서민들의 생활도구를 이용한 대접 돌리기 [바내], 놀라운 신체능력과 입담을 자랑하는 땅재주 [살판], 마지막으로 보통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하늘의 기예 [줄타기], 이렇게 6종목의 기예가 주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 여성의 다산을 상징하고 남자의 힘을 자랑하는 [무동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놀이이다. 하지만 마술과 같은 [얼턴], 나무 기예 [숫대타기], [죽방울치기] 등 많은 기예들은 소실되고 그 흔적만 조금 찾을 뿐이다.



### 네 번째는 '바우덕이'

19세기 말 태어난 미모의 여성. 본명은 김암덕(金巖德). 편하게 바우덕이로 불렸나 보다. 안성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안

성 청룡 바우덕이 소고만 들어도 돈 나온다 / 안성 청룡 바우덕이 치마만 들어도 돈 나온다 / 안성 청룡 바우덕이 줄 위에 오르니 돈 쏟아진다' 라고 한다.

남사당 역사상 유일의 여자 꼭두쇠(단장)로 최고의 기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았지만 23세에 폐병으로 죽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현존하는 남사당 원로들은 모두 안성의 바우덕이패의 후예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긴 이름을 갖게 된다. 이름이 무엇이기에 그리도 중요한지, 도전 끝드벨 방송 프로그램에 문제로 나올 정도면 많이 유명해진 듯. 기분은 좋다. 안성남사당 전수관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토요일 상설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취소한 된 적이 없었다. 바우덕이 풍물단의 가장 큰 재산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펼친 토요일 상설공원의 힘이다. 공연장 바닥을 단원들 손수 소금뿌리고 흙을 골라서 다지며 관객을 맞이했다.

처음엔 100명도 채 안 되는 관객이었지만, 비포장도로 어렵게 찾아온 관객들은 비록 차갑고 딱딱한 객석이었지만 그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기를 7년이 지나 8년으로 접어든 지금의 토요일 상설공연, 1,300여명이 다녀간다. 갈 곳이 그리도 없는지 전국에서 찾아온다. 사실 내비게이션이 너무 고맙다. 매주 토요일이면 공연을 해야 하는 남사당 단원들 정말 어려운 일이다. 프로야구 선발투수도 등판에 맞춰 컨디션 조절하기 어렵다고 한다. 낮 3시부터 저녁 8시 30분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공연과 프로그램, 그리고 작은 먹거리 장터, 토요일의 작은 주말 축제가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남사당 광대들의 숙명이고 생명이기에.

조선시대의 남사당은 범지역성, 탈장르화 등 최고의 진보적 예술관과 예술성을 가진 단체였다. 열린 예술을 지향하며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여!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담론을 바우덕이풍물단은 실천에 옮기고 있다. 생명력 있는 현재적인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한국 사람들 참 공짜 좋아한다. 그런데 오히려 이젠 관객들이 왜 입장료가 없냐고 물어온다. 안성시민들의 동의로 얻어진 기회,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한 토요일 상설공연은 곧 또 다른 모험을 시작한다. '남사당' 이 바로 그것이다. 대자본의 뮤지컬이 점령하는 현대 공연시장에서 전통예술의 갑갑함을 우리 역시 모르고 있진 않다. 대중성과 상업성이 무조건 예술성을 훼손하진 않는다. 조선시대의 남사당은 범지역성, 탈장르화 등 최고의 진보적 예술관과 예술성을 가진 단체였다. 열린 예술을 지향하며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인 거여! 유명하신 분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담론을 바우덕이풍물단은 실천에 옮기고 있다. 생명력 있는 현재적인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2010년 가을 바우덕이풍물단에 남사당의 문이 열린다. 원형으로 지어진 전용공연장 개관으로 추운 겨울에도 관객을 만날 수 있으니 엄청 기쁘면서도 사실 좀 두렵다. 흙을 밟으며 하늘을 보면서 때로는 비 맞으면서 푹푹하게 펼쳐졌던 정감이 사라질까봐 두렵다. 이젠 관객 여러분! 공짜로 보시면 안 된다. 2010년 월드컵의 해, 1달간 남아공에서도 바우덕이풍물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몽골에서도 볼 수 있다. 물론 안성에서의 토요일은 절대로 쉬지 않는다. 우리는 행복하다. 우리를 보는 우리가 행복해하기에…….



류정석 바우덕이풍물단 단무장

##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까지 즐기세요!

지역에서 축제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일부의 지역축제는 경쟁력 있는 축제로 평가받고 있으며 콘텐츠를로서 고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은 훌륭하다"고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들은 누구나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자긍심도 지니고 있습니다.

지역축제의 성공 여부는 지역에 알맞게 차별화된 지역문화원형과 그 가치를 오늘의 감성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 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며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을 형성해야만 지역축제는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01년에 안성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된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시작은 작았으나 날로 관객들의 인기를 더해 2007년부터는 장소를 시내에서 접근이 용이한 안성천의 강변공원에서 옮겨 개최되어 관객이 100만을 넘는 대한민국대표 축제가 되었습니다.

축제 메인프로그램으로는 안성시민 5,000여명이 참여하는 길놀이와 조선의 3대 장시였던 옛날장터재현 그리고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안성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공연 이렇게 3개의 프로그램이 메인으로 있으며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대통령이 수여하는 전국풍물경연대회 CIOFF(세계민속축전기구협의회)회원국이 참여하는 해외공연 그리고 남사당단원들과 함께하는 남사당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조선시대 놀이패 남사당의 최초발생지이자 총본산인 안성에서 '2010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오는 9월 6일(월) 전야제를 시작으로 9월 7일(화)부터 9월 12일(일)까지 6일간 '남사당 짱! 바우덕이짱!'이란 주제로 안성시 강변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는 우리나라 최초대중연예집단인 남사당패의 여자꼭두쇠 바우덕이(金岩德)의 예술정신을 기리고 우리나라 전통 놀이문화의 산실인 남사당놀이를 보존하고 나아가 우리 전통 문화의 신명과 흥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축제입니다

메인공연장인 바우덕이마당에서 펼쳐지는 전야제 '곰뱅이트기'는 남사당 예법에 따라 축제 시작 전 시민들에게 축제를 열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는 내용으로 전 세계에서 안성에서만 볼 수 있는 유일무이한 독특하고 특이한 공연으로 CIOFF국제민속

축제 공연단과 함께 축하공연으로 진행 됩니다.

시내에서 펼쳐지는 바우덕이 길놀이는 5,000여명의 안성시민과 200여명의 CIOFF국제민속축제 외국공연단이 함께하여 안성! 올라~ 올라~ 올라~라는 구호에 맞춰 시내에서 축제장까지를 행진하는 길거리공연으로 출연진들의 화려한 의상과 현란한 몸짓 휘황찬란한 차량들의 행렬로 관광객들에게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시민무대에서는 태평무, 향당무, 망꺾레, 뽕리댄스, 청소년들의 비보이댄스 등 전문공연단과 시민들이 준비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공연들이 연일 계속되고 축제 때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CIOFF국제민속축제 해외공연단의 수준 높은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은 관광객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또한 안성 구시장거리의 옛 흔적이 남아 있는 골목을 이용 6-70년대의 거리를 만들어 추억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6070거리'를 조성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등 일대에서 일탈할 난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유치원생부터 일반인들까지 약 1,500명의 풍물인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전국풍물경연대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하게 대통령이 수여되며 안성에서만 볼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공연형식의 경연대회로 전국에서 출전한 각양각색의 풍물과 사물을 한곳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는 2006년 유네스코단체인 CIOFF국제민속축전의 공식축제로 지정 세계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2012년에는 4년마다 한번씩 개최되는 일명 문화올림픽이라고 불리는 2012 세계민속축전(폴코리아다, Folkloriada)을 안성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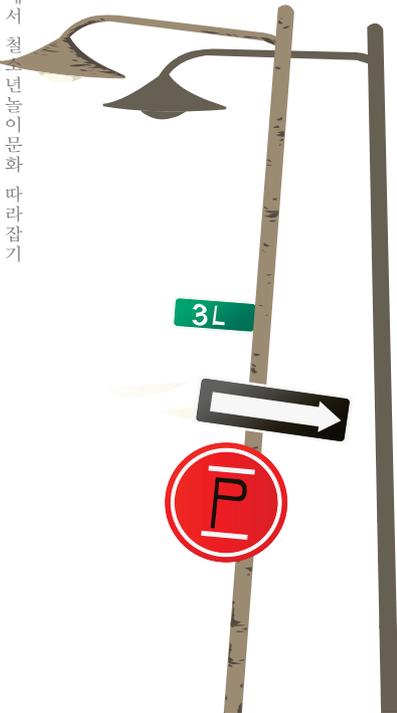
안성시는 안성을 세계적인 전통문화예술공연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안성마춤랜드를 2012년까지 조성하여 그곳에서 2012년 세계민속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홍성일  
안성남사당바우덕이풍물단 예술감독



# 정보사회에서 청소년놀이문화 따라잡기



## 우리시대의 이데올로기 '문화', 그리고 '문화헤게모니'

명제와 선언의 시기다. 슬로건과 아젠다를 삶의 '레페르'로 삼는데 익숙한 시대다. 그리고 그 중심축엔 '문화의 세기'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실 미래사회를 일컬어, 문화의 세기로 단정하고 추인하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한국사회의 경우 20세기 후반, 구체적으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수면위로 부상한 문화란 용어는 이제 21세기를 대표하는 상징적 코드가 됐다.

오늘날 문화의 핵심세력은 10대와 20대,

곧 성장세대인 청소년들이다. 소위 문화의 전위세력, 아방가르드로 불리는 이들 문화계털리는 오늘날 소비자본주의 사회의 결실인 대중문화의 결정자이며 동시에 대중가요의 인기순위를 좌우하고 상품의 주요 소비세력이자, 디지털 세계의 소비자(prosumer)이다.

그런데, "꼭연 청소년에게 놀이문화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상하리만큼 극단적이다. 일군의 논자들은 청소년이란 인구집단엔 분명 일정한 양식과 의미를 함의하는 놀이문화가 있다고 응답하는 반면, 또 다른 편에선 놀이문화의 양식이 차용되어 있을 뿐, 내용과 의미에 있어선 진정한 문화는 없단다. 전자는 신촌, 압구정, 홍대앞, 대학로 등 신세대문화지대로 일컫는 거리의 이질적인 문화형태와 양식을 그 대표적 사례로 일컫는다. 이들 거리에서 나타나는 세대간 문화경계, 양식의 이질화는 분명 이들의

주장에 대한 명징한 증거다. 반면 후자의 주장들은 결국 청소년의 놀이문화란 성인, 혹은 대중문화의 유산이며 그의 답습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은 청소년의 여가활용실태를 빗대 결국 이들의 놀이문화란 매스미디어의 수용(TV시청), 친구들과의 교제, 체육활동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청소년놀이문화의 유무논쟁이 세대간의 경계선 인정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사실이다. 즉, 문화를 중심으로 세대간 경계를 인정하는 입장이 전자라면, 그 경계선조차 의미에 있어서는 동질적이란 논의는 후자다. 문제는 이 경계선의 인정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헤게모니, 곧 문화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있다. 최근, 문화연구 및 문화이론에 관련된 담론과 논의에 있어 뉴 에이지(new age)담론은 주류문화에 대한 청소년세대의 문화적 독창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이들 문화의 주도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도성이란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소비 헤게모니를 청소년세대들이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얻어진 상징적 의미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두고 비판적 이론가들은 성인세대가 일구어낸 부의 산물이 청소년의 손을 거쳐 다시 소비자본주의사회와 그 부산물인 상업성에 의해 형성된 '부유물'로 비유하곤 한다.

즉, 청소년 대상 마케팅 전략에 의해 형성되어진 상업주의적 속성과 전략으로 교묘하게 위장된 사이비 헤게모니로, 그 주체는 청소년이 아닌 문화산업의 정점, 곧 자본에 있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청소년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듯한 대중가요시장(스타산업, 음반), 패스트푸드, 의류, 약

현대사회기 정보사회로의 편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보편성과 무한한 확장가능성이 분명한  
가상공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세사리, 음료 및 스낵시장 등은 시장논리에 점유된, 자본의 힘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들의 논리는 문화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부문들에 있어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세대는 여전히 성인세대라고 지적한다. 청소년문화의 유무논쟁은 그래서 문화 헤게모니 논쟁으로 연결된다.

## 정보사회와 가상공간\_ 영상세대의 문화적 특성

그런데, 이런 논쟁이 거리에서 가상공간으로 대결장면을 옮기면 상황은 반전된다. 왜냐면 가상공간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문화현상은 분명 다양하고 이질적이며 그 문화적 헤게모니 역시 확실하게 젊은 세대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곳은 기존의 질서와 전형적 양식에 의해 지배되고 순응하는 현실과는 차원이 다른,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하며 그래서 새로운 질서와 양식을 요구하는 곳이다. 사실, 현대사회가 정보사회로의 편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그 보편성과 무한한 확장가능성이 분명한 가상공간을 따라잡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의 진보와 지식·정보의 폭발적인 확장력도 그 이유겠지만, 누구도 미래의 전망을 쉽게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사회가 향후 인간 삶의 질을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현대인이 운명적으로 지녀야 할 삶의 과제일 것 같다. 어쨌든 지식과 정보가 사회발전 동인(動因)으로 작용하는 정보사회로의 전이과정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이해는 청소년문화 읽기에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컬러TV의 영상과 뮤직비디오, 게임, MP3, DVD, DMB, 스마트폰 등 이전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영상매체와 문화를 성장배경 과정에서 체화하며 향유해 왔다. 이전의 세대가 활자매체를 통해 성장했다면, 이들은 영상매체를 통해 그들 세대만의 문화양식들을 육화(肉化)해 성장했다. 그렇기에 이들은 활자와 인쇄매체보다는 영상매체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시각적 메시지에 익숙한 세대이다. 새로운 청소년세대들의 문화적 감수성은 이렇게 그들이 즐기는 영상문



화의 특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 영상세대의 문화적 특성은 활자세대와 비교해 얼마나 다를까? 여기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말이 있다. 말은 활자언어에 의하면 말=馬=horse로 규정된다. 이러한 언어적 구조는 한글의 경우,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한자의 경우도 부수체제에 의한 획의 구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영어 역시 horse라는 언어적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 단계로 알파벳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전제되어야 한다.

언어의 형상구조에 기초되는 이와 같은 이해와 암기과정을 거친 후 우리는 말이란 실체와의 연합과정을 거쳐 비로소 개념화에 도달하게 된다. 활자문화는 이와 같이 어떠한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논리적이며, 서사적인 일련의 논리적 과정(자음/모음-음절-단어-문장)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영상매체는 말이란 실체를 그림과 사진 등의 전달매체와 시각적 기호를 청각적 기호와 연합해 인간의 대뇌에 삽입함으로써 활자문화에서 요구하는 일련의 논리적 구조를 뛰어넘는, 일종의 감각적이고, 단속적인 구조를 갖는다.

그래서 영상문화는 활자문화와 비교해 파편적이고 분절적이며 비논리적이기에, 영상문화에 익숙한 수용자들은 활자매체에 익숙한 수용자들에 비해 이질적이고 포스트모던한 문화적 감수성 체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영상문화에 의해 단련받은 청소년세대의 놀이문화는 그 전 세대의 놀이문화에 비해 다양하고, 단락적이며, 탈맥락적이지 탈중심화적인 경향을 갖는다. 본래적으로 개체중심적인 경향을 갖는

인식의 고착은

단순한 세대 차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오고, 나아가 세대간의 대치상황을 갈등과 충돌의 양태로 몰아가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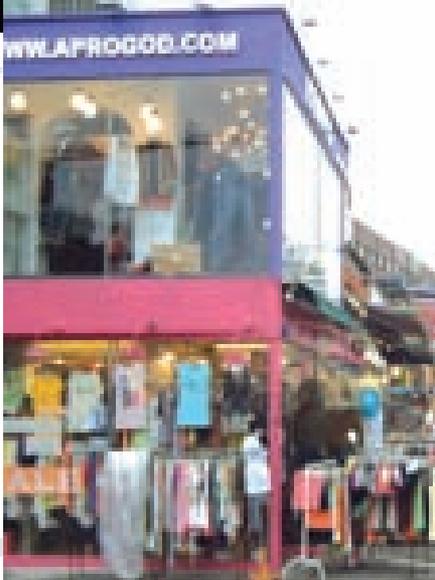
정보사회의 특성 상 이러한 경향은 다분히 강화될 전망이고, 또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변화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 혹은 기존질서는 인식의 고착에 빠지기 쉽다. 인식의 고착은 단순한 세대 차 상황에서 오해를 불러오고, 나아가 세대간의 대치상황을 갈등과 충돌의 양태로 몰아가기 쉽다. 변화에 둔감한 기성세대는 곧잘 이들의 문화를 읽는데 있어 오역하기 쉬운데 문제는 이 두 집단 사이의 마주보기가 긴장과 갈등의 상태로 대치되거나 혹은 한 집단의 보편적 주류화의 흐름에 의해 다른 집단에 대한 문화적 존중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 가상공간에서의 연대와 화해의 모색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시공간적으로 완벽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개인과 사회에 제공한다. 이는 곧 물리적 공간이 독점했던 기존의 획일적 중심성을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평가는 이 중적이다. 즉,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정보사회로의 전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 논쟁은 자못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을 중심적 가치로 사고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줄 희망이자 대안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보화의 기술적 기능성에 쉽게 묻혀버리곤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와 성장세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



토와 평가가, 지나친 낙관과 분홍빛 미래로 인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맹신, 신근대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민감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성장세대에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의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사회로의 전이가 갖고 있는 미래(어쩌면 현실의)에 대한 엄밀한 논의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화두는 바로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라 할 것이다. 정보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두 번째 과제는 정보사회가 창출하는 가상공간 및 일련의 과정에서 세대간의 연대와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 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가속장치'라 하더라도 그 속도와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맞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변화된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기성세대에선 적응력과 성장세대 문화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그리고 생득적으로 적응력 있는 성장세대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회적으로 좀 더 투여할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즉, 어른과 사회는 아이의 문화에 창의적인 문화적 특성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반면 성장세대는 자기 문화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부가하여 세대간 소통과 연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보사회로 진입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각 세대가 서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만약 이런 움직임들이 이루어진다면, 호이징가가 이야기 한 바대로 진정한 놀이의 공간으로써 가상공간을 향유할 수 있는 "놀이의 인간"(Homo-Ludens)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김민 순천향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共通禮節

## 공통예절



김득중 한국전례연구원 원장

우리나라의 경례의 역사는 아마도 1894년에 2차에 걸쳐 서양식으로 의복제도를 개정한 의제개혁(衣制改革)으로 양복을 입는 풍조가 생기면서 양복을 입은 이들이 읍례(揖禮) 대신 허리를 굽혀 예를 표하는 서양식 절을 하다가 1895년 12월 30일(陰11月15日)에 단발령이 내려 그날로 고종(高宗)황제와 태자(太子)가 머리를 깎고, 조신(朝臣)들도 자연히 머리를 깎고 양복을 입으면서 조야 공사간(朝野公私間)에 경례를 하는 관습이 생겼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미루어 우리나라에서 경례를 한 역사가 115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경례를 하기 시작해서 1백년이 가깝도록 경례의 방법과 종류가 정해지지 않아서 사람마다 달리 했었는데 1988년 11월 20일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韓國文化財保護財團)에서 간행한 金得中 저술의 <우리 전통예절> 2장 2절 1항 '절에대한 예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례의 의미와 종류를 제시하였다.

### 경례(敬禮)

① 경례의 의미 | 경례는 섬살이(입식생활)에서의 절이다. 전통배례를 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절은 선채로 허리만 굽혀서 경례한다. 한복을 입고 경례할 때는 공수하고 경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양복을 입었을 때도 더욱 공손한 경례를 하려면 공수한 자세로 하는 것이 좋다.

### ② 경례의 종류

- (1) 의식경례 | 혼인례, 상장례, 제의례에서 전통배례가 아닌 경례를 할 때는 윗몸을 90도로 굽히는 의식경례를 한다.
- (2) 큰경례 | 큰절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방법은 윗몸을 45도로 굽힌다.
- (3) 평경례 | 평절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방법은 윗몸을 30도로 굽힌다.
- (4) 반경례 | 반절을 하거나 간략한 예를 하는 경우의 경례이다. 방법은 윗몸을 15도로 굽힌다.
- (5) 목례 | 길을 걸을 때와 노상 등에서의 간략한 인사의 경례이다. 방법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상대를 보며 고개만 숙인다.
- (6) 거수경례 | 제복을 입은 사람의 경례이다. 방법은 오른손을 펴서 손 끝이 오른쪽 눈썹에 닿도록 손을 올린다.
- (7) 국기에 대한 경례 | 국기에 대해 존경과 충성을 서약하는 경례이다. 방법은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댄다.

## 10. 경례(敬禮)의 종류와 방법

### 1) 경례의 의미

경례는 섬살이·입식생활(立式生活)에서 절 대신 하는 공경의 표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례를 하지 않았었는데 개화기 이후에 양복을 입으면서 서양의 절인 경례를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양복이 아니고 한복을 입고서도 경례를 하는데 읍례보다 간편해서이다. 경례는 4박자로 동작한다. 1박자로 몸을 굽히고, 1박자 멈추었다가 2박자로 일어난다. 그이유는 몸을 굽히는 것은 자기를 상대보다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의미인

데 그것을 주저하면 상대를 높이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되어 미안해서 1박자로 속히 굽히고, 1박자를 쉬는것은 굽힌 정도를 기능하게 하려면 굽힌 채로 잠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고, 2박자로 굽힐 때보다 천천히 이러나는 것은 몸을 세우면 상대와 대등해지는 것이라 대등해지는 것이 미안해서 조심스럽게 일어나기를 주저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

## 2) 경례할 때의 공수(拱手) 위치

한복을 입고 경례할 때는 남녀 모두 공수를 해야 한다. 한복은 남자는 두루마기, 여자는 치마가 정장(正裝)이므로 경례하기 위해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앞자락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하기 위해 앞섶을 여미는 데에 의미가 있다.(그림 2332-①)

남자가 양복을 입고 경례할 때는 공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남자의 양복은 바지가 정장이기 때문에 앞자락이 바닥에 끌릴 염려가 없어서이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더욱 정중한 공경의 의사를 나타내려면 공수하고 경례하는 것이 더 좋다.(그림 2332-②)

여자가 양장을 입고 경례할 때는 반드시 공수를 해야 한다. 여자의 양장은 치마가 정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자가 바지를 입고 경례할 때도 반드시 공수하고 한다. 비록 바지를 입었어도 정장은 치마이기 때문이다.(그림 2332-③)



2332-① 남자 공수 분다



2332-② 남자 공수하면 더 좋다



2332-③ 여자는 언제나 공수한다

## 3) 경례의 종류

### 가) 의식경례(儀式敬禮)

전통적인 의식행사에서의 절은 한 번만 하는 홑 절이 아니고 두 번하는 겹절이다. 경례는 의식행사라도 두 번을 거듭하는 법이 없으므로 한 번만 하되 윗몸을 90도로 굽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다. 90도로 굽히는 이유는 큰경례를 45도 굽히기 때문에 한 번 하더라도 두 번 경례한 효과를 보기 위해 큰경례의 배를 굽히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의 맞절, 상가에서 영좌에 하는 경례, 제의례나 추모의식 등에서 신위에 대한경례이다. (그림 2333-1)

### 나) 큰 경례

전통배례의 큰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윗몸을 45도로 굽혀 잠시 머물러 있다가 일어난다. (그림 2333-2①)



2333-1 남녀 의식경례 90도 굽힘



2333-2① 남녀 큰경례 45도 굽힘

다) 평 경례

전통배례의 평절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윗몸을 30도로 굽혔다가 일어난다.

(그림 2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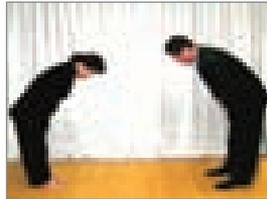
라) 반 경례

전통배례의 반절을 하는 경우에 하는 경례이다. 윗몸을 15도로 굽혔다가 일어난다.

(그림 2333-4)

마) 목례(目禮)

동료사이나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만나거나 보행 중에 마주치는 경우에 정지해서 일반 경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눈길만 주고받으며 고개를 약간 숙이는 목례를 할 수도 있다.(그림 2333-5)



2333-3 남녀 평경례 30도 굽힘



2333-4 남녀 반경례 15도 굽힘



2333-5 남녀 목례



2333-7 남녀 맹세의 경례

바) 거수 경례(擧手敬禮)

제복(制服·유니폼)을 입고 생활하는 사람(군인, 경찰 등)은 오른손을 펴서 두 번째와 가운데 손가락 끝이 오른쪽 눈썹에 닿도록 올려서 예를 표하는 거수경례를 한다. 모자를 썼을 때는 모자의 오른쪽 차양에 손끝이 닿게 한다.

사) 맹세(盟誓)의 경례

국기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국기에 대한 경례, 또는 운동경기에서의 선수선서(宣誓)나 어떤 대상에게 맹세할 때는 오른손을 펴서 들어 올려 왼쪽 가슴에 덮어 대고, 맹세가 끝난 다음에 원위치로 내린다. 맹세를 받는 사람도 같은 동작을 한다.

왼쪽 가슴은 심장이고, 오른손으로 심장을 덮는 것은 마음과 몸을 다한다는 충성의 표시이다. 충성은 정직, 성실, 진심, 진기(正直 誠實 盡心 盡己)이므로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국기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경례는 그렇게 하면서 기타의 선서에는 오른손을 펴서 세워서 들고 맹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겠다.(그림 2333-7)

## 11. 악수(握手)의 방법

### 1) 악수의 의미

악수는 절이라기 보다는 정의를 표시이지만 절을 하는 대신 관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의 일종으로 간주해 서술한다. 악수를 했다고 해서 당연히 절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 2) 악수의 기본동작

오른쪽 팔꿈치를 직각으로 굽혀 손을 자기 몸 중앙이 되게 수평으로 올리며, 네 손가락은 가지런히 펴고 엄지는 벌려서 그와 같이 한 상대의 오른쪽 손을 살며시 쥐었다가 놓는다. 가볍게 아래위로 몇 번 흔들어 정을 두텁게 하기도 한다. 상대가 아프게 느낄 정도로 힘 주어 쥐어도 안 되고 지나치게 흔들어 몸이 흔들려도 안 된다.

### 3) 악수하는 방법

- ① 웃어른이 먼저 청해야 아랫사람이 악수할 수 있다.(그림2342-①)
- ② 남녀 간의 악수도 상하의 구별이 있을 때는 웃어른이 먼저 청해야 한다.(그림2342-②)
- ③ 같은 또래의 남녀 간에는 여자가 먼저 청해야 악수 한다.(그림 2342-③④)
- ④ 동성간의 같은 또래의 악수도 선배 연상자가 먼저 청해야 악수 한다.(그림 2342-⑤)
- ⑤ 아랫사람은 악수를 하면서 허리를 약간(15도 이내) 굽혀 경의를 표해도 좋다. 웃어른에 대한 공경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연스럽다.(그림2342-⑥)
- ⑥ 악수를 하면서 왼쪽 손으로 상대의 손등을 덮어 쥐면 실례이다. 그러나 웃어른이 아랫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깊은 정의 표시로 양해되기도 하고 정겹게 보인다.(그림2342-⑥)



2342-① 악수 어른이 먼저 청한다



2342-② 아랫사람이 응한다



2342-③ 동년배는 여자가 청한다



2342-④ 남자가 응한다



2342-⑤ 아랫사람이 허리를 굽힌다



2342-⑥ 아랫사람의 손등 감싼다

#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 장흥문화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장흥문화원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민속놀이 한마당을 열었다. 지난 2월 27일(토)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장흥읍 탐진강변(장흥교 아래 주차장)에서 축제의 마당이 펼쳐졌다. 지혜와 슬기가 깃든 세시풍속놀이에 가족·이웃과 함께 하며 옛 추억에 잠기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달집태우기로 묵은 액운을 태워 보내며 소원을 빌었다. 경연 민속놀이(으뜸자 시상)로 어른은 투호놀이(남·여)·제기차기, 어린이는 투호놀이·긴줄넘기·제기차기 등을 했다. 부대행사로 농악·풍물 공연, 연날리기·팽이치기 시연, 달집에 소원 써서 매달기, 가훈 써주기, 달집제사 등이 있었다.

## 강동문화원

강동문화대학 제5기 개강과  
「좋은동네」 제10호 발간 간담회 열어



- 주민들도 독후감 접수 받아 시상도 -

강동문화원(원장 이원달)은 지난 5월 14일 에 강동구민회관에서 강동문화대학 제5기 개강식과 「좋은동네」 제10호 발간기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대학 개강식은 정원이 훨씬 넘는 75명이 접수되어 개강 했다.

이원달 문화원장은 개강식 인사말에서 '문화에 대한 안목을 높이는 한편 체험중심의 교육에서 감성중심의 강좌로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한편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문화가 필요한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명사들로 이뤄진 강동 문화대학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 첫날 개강은 '인생사유 설명서' 라는 주제로 소설가 김홍신교수 강의가 시작되었고 앞으로 13강좌가 진행된다.

「좋은동네」간담회

간담회 행사는 문화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용우 송파문화원장과 이동섭 서양화가, 김종수 용산미협회장 등 관외 인사와 관내 인사로는 이혜식 강동구청장, 회원중에 박해옥 구의원과 강동문화예술 단체장과 원로, 회원(평생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강동구 주민 센터의 18개동 통친회장도 참석했다.

간담회 진행은 개막식 행사와 간담회 행사로 진행됐다. 개막사에는 이번엔 발간한 계간지 복호에 대한 영상자료를 통하여 「좋은동네」표지와 함께 11개 목차의 내용을 세부적 설명으로 참석한 분들은 행사장에서 종합문예지를 읽을 수 있었다.

이원달 문화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문화원이 새 출발한지 3년차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문화에 담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계간지 제10호를 발간했다. 이 「좋은동네」계간지는 전국적으로 종합문화계간지의 모델로 홍보 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는 데 전도사역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문화원도 자생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과 다함께 지혜를 모아 문화일구기 운동에 힘을 보태보자고 했다.

이어서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좋은동네,계간지가 우리구의 종합문예지로 손색이 없으며 강동아트센터 건설관계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문화원에 예산을 원활히 지원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동섭 서양화가와 전재동 문학박사도 축사를 했다.

간담회 행사는 시루떡 절단식을 가졌으며 간담회에서 이원달 원장은 우리 구 관내 통장들에게 "좋은동네,계간지가 발송되고 있으므로 주민들도 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보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이번호부터 독후감을 심사해서 우수 작품에 대한 시상과 다음호에 게재하므로 홍보를 하여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 「좋은동네,계간지」는 독자기고와 독후감 응모 등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는 종합문예지의 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 거창문화원

거창문화원 임원 선진문화탐방 실시



거창문화원(원장 정주환)에서는 지난 4월 10일 문화원 임원 선진문화탐방을 실시하였다.

이번 답사에는 문화원 고문, 자문위원, 부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 30명이 참가하여 전남 강진군의 영랑생가, 사의재, 백련사, 다산유물전시관, 다산초당, 고려청자박물관을 둘러보았다.

김중주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로 영랑 김윤식의 문학 활동과 다산 정약용의 유배생활, 강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깊이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백련사에서 산길을 통해 다산초당까지 가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대덕문화원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대전거점네트워크 1차 워크숍



대덕문화원은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대전거점네트워크 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4월 21일 참여기관 및 문화예술강사 30여명과 함께 1차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적 방향제시 및 참여기관과 문화예술강사간의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 동래문화원

2010년 청소년 동래 향토사 교실 개최



동래문화원(원장 성원주)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고장인 동래지역의 자부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고자 "2010년 청소년 동래향토사 교실"을 개최하고, 5월 1일 수강생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래문화원 회의실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이번 2010년 청소년 동래 향토사교실은 초등 4~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 1학년 대상으로 동래의 주요 설화, 사건, 인물 소개, 동래부동헌, 동래읍성지, 총렬사, 장영실 과학동산 탐방 등 첫 강의를 갖고, 1개월 과정으로 1기-5기까지 진행 된다

## 문경문화원

향토사대중화사업 해보라 향토사문화학교 개강



문경문화원(원장 현한근)은 5월 10일 문경시 농암면 해보라학교(교장 명은주)에서 '향토사대중화사업-해보라 향토사문화학교'를 개강하고, 10월 말일까지 6개월간의 교육에 들어갔다.

문경 지역 문화유산의 세대 간 계승을 위해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지역의 유 유형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이를 디지털콘텐츠화하여 인터넷상에 UCC 동영상으로 올려 누구나 실시간으로 문경의 문화유산을 검색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는 문경 지역 장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청소년들의 목표 의식 확립도 도모할 수 있으며, 대안중고등학교로 자리한 해보라학교의 지역 내 정착도 도모하고, 폐교 지역의 문화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경문화원이 주관하며, 해보라학교가 진행하는데, 문경문화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경시의 공모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았다.

## 함안문화원

함안 군민의날 · 제23회 아라제



유서 깊은 아라기야의 고도에서 다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큰 마당이 4월30일-5월 2일까지 펼쳐졌다. 올해로 군민의 날 제23회째를 맞는 아라제는 '아라기야 그 흔의 부활'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9개 분야 67개 종목으로 치렀다. 축제는 지역특색을 한껏 살린 문화·체육·전시·공연행사와 함께 수박축제, 처녀뱃사공가요제, 경남예술 큰 마당 음악회 등과 어울린 통합축제로 불거리를 제공했다.

제1회 예코싱싱 함안 독방 마라투어가 5월2일 함안군 범수면 악양 독방과 둔치에서 3500여명이 참가하여, 물오른 갯벌들 숲과 잔잔히 흐르는 강변의 정취를 만끽하며 달리고 걸으며 생태자연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함안만의 특화된 매력이지 숨은 관광자원인 독길에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특히, 함안문화원에서 주관한 읍·면 농악경연대회는 우리 지역 전통기락을 전승 보급하고 군민의 흥겨운 한마당과 화합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함안농악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경연의 장이 되었고, 대회를 본 사람이라면 농악에 대한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즐겁게 흥이 돋는 멋진 자리가 되었으며, 함안문화원 전시실에서는 미어 이문자 문인화전이 열려, 전시

실을 찾는 관람객들이 감동과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작품에 대한 호응도와 평가가 이어져 시골에서는 보기 드문 좋은 문인화전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함안출신 작가로서 아름답고 예술성이 풍부한 작품을 통해 군민들에게 자기발전을 위해 변화와 도전정신을 갖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청양문화원

제12회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성황  
장승과 벚꽃의 '아름다운 만남'



열두번째 장승문화축제가 지난달 24일 장승공원 일원에서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종합축제로 펼쳐져 관람객과 등산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전통문화인 장승을 보존하고 청양군민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청양문화원(원장 정재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축제에는 연인원 16,000여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축제는 오전 10시 30분 칠갑산대장승 앞 장승대제를 시작으로 장승제막식, 장승 명문식 등이 연이어 진행됐으며, 대치면 농소리, 대치리, 정산면 천장리, 해남리, 용두리, 송학리 등 6개 마을 주민들은 각자 자신들이 전승하고 있는 장승제를 직접 시연하였다.

이밖에도 학생 그리기대회, 가족 허수아비창작공모전 등도 많은 학생과 체험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쾌하게 진행됐다. 문화예술공연으로 초청가수 김태곤, 민요 가수 최숙자, 마당놀이 벼수, 국악신동 송소희, 미술공연, 국악공연, 유금선 무용단공연, 영등포문화원 공연 등이 펼쳐졌다.

또 청양국악협회의 소지울리기와 소원성취기원문달기, 청양우체국의 나만의 우표만들기, 청양도서관의 가훈 써주기, 청양대학의 페이스페인팅, 청양칠갑사진회의 사진전시회 등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이번 축제는 막 피기 시작한 벚꽃과 조화를 이루어 많은 관람객과 등산객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축제 담당자로서 보람을 느꼈고, 또한 자원봉사자로 나선 각 마을 주민들과 단체에 고마움을 전하며 청양의 장승문화가 길이 보전

되기를 기원해 본다.

## 포천문화원

2010 전국 휘호대회 개최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한 제24회 반월문화제 전국 휘호대회가 1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 되었다. 이날 휘호대회에는 시 단위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임·회원, 전국의 서예가 등 3백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각자의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었다.

이날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비의 고장인 우리 포천에서 전국의 서예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휘호대회를 개최 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평소의 기량을 십분 발휘 하여 훌륭한 작품을 다수 출품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서제는 자유선정으로 일반부는 화선지 전지, 학생부 화선지 반절 규격의 작품을 한글, 한문, 문인화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서예계에서 저명하신 허윤희 심사위원장을 비롯하여 4분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엄정한 심사로 진행했다. 입상작품에 대한 전시는 6월 중순 반월아트홀 전시장에서 반월문화제 시상식 및 전시회와 함께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작품집을 발간 배포할 예정이다.

시상식에서는 최고령자로 참가해주신 현용하(95)님에게 노익장상을 전달하였으며, 대회결과 입상자는 대상 1명, 최우수 6명, 우수 6명 외에 특선 입선 등 다수 입상했다.

## 제24회 반월문화제 성료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하고 포천예술인동우회가 주관한 제24회 반월문화제가 4월 25일 포천종합실내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는 각급 기관장을 비롯하여 각급학교장,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 3천5백여 명의 시민과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구축 및 창작활동의 저변확대를 통한 시민의 화합계기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창작예술

#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표현을 통한 자질향상 등 창의적인 소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다른 해보다 더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 학부모들이 참여하여 문화에 슬에 대한 창작열이 어느 해보다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 주었다.



대회장인 이만구 원장은 '반월문화제에 참가해주신 포천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청소년들에게 꿈의 크기는 인생의 크기와 비례하므로 큰 꿈을 위해 노력하여 위대한 성공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서장원 포천시장 및 이철웅 경기도포천교육청 교육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지역 대표 문화행사인 반월문화제에서 참가자 여러분의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이 끝난 후 포천문화원 문화학교 사물놀이반의 공연과 사군자, 한국화, 수채화, 서각, 전각, 파스텔화 반의 작품전시와 함께 본 행사로 백일장, 사생, 서예, 사진촬영 등 부분별로 나눠서 기량을 겨루었으며, 특히 체육관 앞 광장에서는 참여자를 위한 투호, 지점도공예, 종이공예, 규방공예, 목판각 인출 및 시연, 가훈 및 좋은 글 써주기,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윷놀이, 오성과 한음 캐릭터 사진찍기 등 10개 부문의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관심을 끌었다. 한편 접수된 작품은 문화예술계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엄격히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 6월 중순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시상식 및 우수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수상 작품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 “2010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개강식 개최 - 추억의 실버 퓨전예술단 양성반 -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6일 수강생 및 문화원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도 땀땀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단 양성반”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문화학교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음악을 통해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고 노후를 보람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문화원에서도 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며 교육을 통해 좋은 결과와 보람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서울 홍대앞에서 개최된 나이없는날 축제 참가, 포천미술험합창단 정기공연의 초대공연 및 2009 문화인의 밤 특별공연 등을 통해 우리 국악과 양악을 합주로 하여 포천지역의 새로운 퓨전예술장르를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

본 사업은 고령화에 대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에서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실시되는 포천문화원 '추억의 실버 퓨전 예술단' 양성 교육은 10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12시까지 2시간씩 무료강의로 진행된다. 하모니카 · 기타 · 대금 · 플루트 · 색소폰 · 가야금 · 아코디언 등의 휴대가능한 악기를 취미생활로 배우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 포천문화원 ☎ 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 <http://www.pcmh.or.kr>  
e-mail | [kgpc1986@yahoo.co.kr](mailto:kgpc1986@yahoo.co.kr)

## 전국한시백일장 성황리에 개최

- 전국의 한학자 250여 명 참여 -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이 주최한 제24회 반월문화제 전국한시백일장이 4월 29일 포천종합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한시백일장에는 시 단위 각급기관 단체장과, 문화원 임·직원, 전국의 한학자 및 한시동호인 등 25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룬 가운데, '우복당 류전 선생 추모'를 시제로 하여 한시 경연을 벌였다.

류전 선생은 포천시 자작동 출신으로, 평생을 오로지 나라와 종사의 안녕을 위하여 전념하신 공로로 평안공신과 시령부원군에 봉해지시고 불천지위의 은전이 내려진 조선 중기의 명재상이시다.

이날 이만구 문화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비의 고장인 우리 포천에서 전국의 한시 애호가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한시백일장을 개최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우복당 류전 선생의 학덕과 인품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좋은 시를 지어주길 바라며,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장원 포천시장과 이종호 포천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선비의 고장인 우리 포천에서 한시백일장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전제하고 이렇듯 좋은 행사를 주최한 포천문화원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격려했다. 또한 우복당 류전 선생 자손들이 다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시형은 칠언율시, 입운은 明, 成, 精, 名, 聲으로 했으며, 고선위원은 사계권위자를 초빙하여 심사에 공정을 기했으며, 전국의 유림 및 한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시문 향상의 계기를 마련했다.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참가한 이일영님이 영예의 장원을 수상하였으며, 차상 2명, 차하 3명, 참방 10명, 가작 20명 등 다수 입상했다. 또한 이날 시상식에서는 최고령자로 참가해주신 정규창님(90), 김경현님(89), 정병유님(88)에게 노익장상을 전달했다. 포천문화원에서는 이날 출품된 작품들을 모아 시집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문의 | 포천문화원 사무국장 김경민 ☎ 532 - 5015, 5055)

## 평창문화원

‘산촌음식에서 문화를 찾다’

2010년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



평창문화원장 고창식은 “산촌음식에서 문화를 찾다”라는 2010년 어르신문화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산촌음식에서 문화를 찾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배고프고 어려웠던 시절에 직접 산에서 나물을 캐서 음식을 해드셨던 것을 재현하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재현음식으로 도토리국수, 콩깍이, 개드름 밥, 고구마 목 등이며, 앞으로는 육수수랭이떡과 산촌튀김 및 삼색빵 등 20여 가지의 음식을 재현할 예정이다. 4월 16일 개강식을 해 강원도민일보와 여러 방송국의 인터뷰도 하였다.

또한 지난수업에는 GTB강원민방에서 테마스페셜 다큐멘터리에 적합한 아이템이라고 직접 문화원으로 연락해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믿고 촬영을 잘 마쳤다. 기존에 미탄면 복지회관에서 수업하는 모습과 동막골 세트장,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서도 직접 촬영을 했다. 어르신들은 힘들지만, 좋은 추억거리가 생겼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이 촬영분은 5월 23일 밤 11시에 GTB강원민방에서 방송된다.

‘지역의 전설 · 설화에서 문화의 뿌리를 찾다’  
개강식

평창문화원(원장 고창식)은 지난 5월 1일 평창중학교 1,2,3학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향토사대중화사업 “지역의 전설 · 설화에서 문화의 뿌리를 찾다” 개강식을 하였습니다.

# 문 화 원 이 모 저 모 NEWS



이 날 고창식 문화원장은 사업소개 및 취지에 대한 설명과 우리 향토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작년에 향토사 대중화사업을 하면서 유적을 답사하면서 CD로 제작한 결과 물도 보여주며 문화유적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특히 역사나 사회 교과서적인 것은 일반적인 정치, 경제, 사회 등에 한계가 있고,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삶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지루하지만, 향토사는 지역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문화와 역사를 알 수 있어 더욱 재미를 더한다.

개강식이라 전체학생이 참여했지만, 다음수업부터는 향토사반을 따로 운영하여 20~30명 정도의 동아리반을 개설하여 강의를 할 예정이다.

평창중학교 교사의 적극적 협조가 있었으며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선정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으로도 이 지역의 향토사를 소중히 여기고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중학교 뿐 아니라 고등학생들까지도 연계해서 지역의 향토사에 대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 성남문화원

2010 둔촌 백일장(15회) 성황리에 개최  
-총 330여명 참여, 총 2,080만원 상금 수여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지난 5월 8일 옛 광주권을 분향으로 하는 광주이씨의 중시조이자 고려 말 성리학자로 존경을 받아온, 둔촌 이 집 선생(1327~1387, 경기도기념물 제219호)을 추모하기 위해 <2010, 둔촌 백일장>을 개최했다.

둔촌 이 집은, 벼슬이 봉순대부 판교교시사에 이르렀으며, 학문이 고명하고 문장이 초매하여 그 명성이 사람들 사이에 존중받았던 당시의 으뜸 학자로서, 우리 역사 속에서 충절과 효행으로 대표될 만한 전설담의 주인공이다. 현대에서도 둔촌에 대한 각종 연구논문, 학술회의, 토론회가 국내·외에서 왕성히 전개되고 있는 인물이다.

<2010, 둔촌 백일장>은 제15회 둔촌 청소년 문학상 과 '제5회 둔촌 한시 백일장'으로 나뉘어 대원공원과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각각 진행됐으며, 대원공원에서는 성남·광주·하남시 소재의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청소년 백일장이,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한시인들의 백일장이 진행됐다. 이번행사는 '우리춤 체조' 특별공연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마련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성

황리에 치러졌다.

이날, 참가한 총인원은 330여명으로 심사결과 92명이 입상하고, 총, 2,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성남문화원은 이날 출품된 작품들을 모아 '둔촌문학상 입상 작품선'을 발간할 계획이다.

‘제1회, 2010 둔촌 문화제’  
성남아트센터에서, 5월 9일 개최



성남문화원 (원장 한춘섭)은 성남의 큰 어른 둔촌 이 집(1327~1387 / 고려말 성리학자, 경기도기념물 제219호)선생의 효행과 충절심을 기리는 '2010 둔촌 문화제' 첫 번째 행사를 5. 9(일) 오후 4시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씨어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성남농악보존협회의 '판굿' 을 시작으로, 경기도립 리듬앙상블의 '아리랑 흰타지', '비상', '몽금포 퓨전' 에 이어 '제2회 둔촌상 시상식', 성남 국악계를 대표하는 방영기 명창이 둔촌 작 '정훈' 을 시창하며, 국내 뮤지컬계의 신데렐라로 우뚝 선 뮤지컬배우 이해경, 서정수의 뮤지컬 하이라이트 '나가거든' (명성황후), 'Take me as I am' (지킬 앤 하이드), '영웅' (뮤지컬 영웅), 산성 ART FOR 人 남성 팝페라 그룹 '보체 아르모니아' 의 둔촌 추모 '큰 기침 소리' (한춘섭 작사 / 이선택 작곡)와, 성남무용단(안무 / 김중해)의 창작무용 '둔촌, 학(鶴)으로 살다' 가 초연 공연됐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제2회 둔촌상' 을 수상하며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었다. 성남문화원 한춘섭 원장은 "성남문화원이 앞장서 둔촌선생 묘역 문화재 지정, 학술토론회 개최, 둔촌 청소년문학상 백일장, 시조시, 한시, 중국 백일장, 둔촌이야기 자리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연례적으로 개최해 오며, 성남시의 역사 속 큰 인물 추앙사업 본보기를 제시했다" 며, "앞으로 둔촌문화제를 우리나라 향토성 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말했다.

「제4회 중국 둔촌 백일장 및 '冊 읽기와 詩朗誦' 개최」  
- 2010, 한·중 문학인의 만남



지난 5월 22일, 성남시와 국제저매도시인 중국 심양시의 고궁에서 <제4회 중국 둔촌 백일장>이 개최됐다.

성남문화원이 심양시교육국 민족교육처, 심양시조선족 문화회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소화초, 초중초, 고중초, 교원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심양시 조선족 학생, 교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당일 심사는 권준철 심양시조선족문화회장과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시조시인)의 최종심의를 거쳐, 총 124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고, 총 6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부터는 선양 한국인문화원에서 '2010 한·중 문학인 만남, 두 번째, 冊 읽기와 詩朗誦' 행사가 열렸다.

1부는 한춘섭(성남 문화원장)과 권유현(재 선양 한국인(상회 회장), 권준철(심양시 조선족문화회장), 이해재(광주이씨 대중회 도유사)의 간단한 인사말씀 및 축하에 이어, 2부는 이해재(광주이씨 대중회 도유사)의 '한양으로 가는 도중에' 시 낭송을 시작으로 권유현 재 선양 한국인(상회 회장, 신정길 동양화가, 김창영 료녕 조선 문보 기자, 서정순 심양시 조선족 문화회 리사, 김정진 성남문화원 사무국장, 로춘애 심양시 조선족 제1중학교 교원, 리문호 심양 시조문화회 부회장, 이보영 성남 문화원 총무과장, 김룡호 심양시 조선족 문화회 시분과 주임, 한춘섭 성남문화원 원장(시조시인)등 한국과 중국 심양의 문학인들이 모여, 애독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한춘섭 성남문화원장은 "성남시와 국제저매도시인 중국 심양에서 '두 번째, 冊 읽기와 詩朗誦' 행사가 개최된 것은 뜻 깊은 일이며, 앞으로도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우 리 문 화 소 식 NEWS

## 2010 UNESCO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THE 2<sup>nd</sup>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2010. 5. 25 - 28 서울 코엑스



예술은  
사회성을  
교육은  
창의성을



##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와 유네스코가 공동 개최하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여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문화예술교육을 주요정책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한 전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창의성 증진이라는 유네스코의 수범사례로 인정되어 이를 세계 각국에 공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장이 될 것이다.

우리는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알리는 전국 문화원 현수막 게시 및 물품후원으로 국내의 지방문화원 홍보 및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국제행사의 후원을 통하여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다.

이 행사는 서울 코엑스에서 5월 25(화)부터 28일(금) 4일간 열릴 예정이다.

시도지회장



부산광역시지회장  
이규상(李圭祥)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장  
관선 및 민선 1~2대 동래구청장  
동래문화원장  
부산문화재단 이사, 재선임



대구광역시 지회장  
김덕영(金德永)

중구 문화원장  
김연승 성형외과 원장  
대구 보건대학 이사장



인천시지회장  
김원옥(金元玉)

연수문화원장, 벨기에의 저서「실존주의」를 포  
함한 다수 원서 번역, 민간예술단체 '아트리그  
창단, 계간지 '아트리그' 출간,  
시 문학단체인 시농(詩農) 대표, 인천 프랑스문화원  
운영위원장



광주시지회장  
김종(金鍾)

서구문화원장, 국제펜클럽 광주시 회장  
광주살레시오중고등학교 총문회장  
세계평화기원축제 심사위원장

문화원 새얼굴

문화원장



중랑문화원장  
박신일(朴信一)

신우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장  
취경여자고등학교 육성회장 역임  
서울북부지방법원 조정위원회 회장 · 명예회장  
중랑구 발전기획위원회 공동위원장 중랑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부원장



무주문화원장  
김내생(金來生)

무주군청 정년퇴임  
(현) 무주읍 자치행정위원장  
무주복지회관 운영위원장



경산문화원장  
이덕재(李德載)

국제라이온스협회경북지구 총재 역임  
한국문화원연합회 경북도지회 감사  
해동폐차장 대표, 입량초등학교총동창회 회장  
전국지동차협회전국 부회장  
대구 · 경북폐차협회 회장, 재선임



철곡문화원장  
장인희(張璘熙)

철곡군 기획감사실장 및 철곡문화원 이사 역임

원 장 동 정  
NEWS

시도지회장



인천시지회장  
허문명(許文明)

부평문화원장  
단국대 중앙도서관장 역임



광주시지회장  
문병란(文炳蘭)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부 문창과 교수  
동대 인문대학부 사회교육원 문창반  
광주대 문창과 출강, 현대문학 등단 시인  
광주광역시 예술상 등 수립

퇴임 원장

문화원장



중랑문화원장  
김용(金勇)

김용한의원 원장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무주문화원장  
김경석(金景汐)

(현) 무주군 지명위원  
무주군지 편찬위원회 부위원장



칠곡문화원장  
장영복(張永福)

칠곡군지역혁신협의회위원  
민주평통위원

지역문화를 위해  
헌신하신 뒷모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전국

# 장문화

제25회 전국향토문화경모전

접수기간: 8.1 ▶ 8.31

TEL: 02-8888-2222  
FAX: 02-8888-2222  
WWW: WWW.HANGTOCULTURE.COM

2010 전국향토문화경모전 장문화 부문

장문화 부문 수상작 발표

대상

이경희 (충청남도)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장문화 부문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장문화 부문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장문화 부문

수상작

대상 이경희 (충청남도)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장문화 부문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장문화 부문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장문화 부문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이정희 (충청남도)

본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대회에 참가하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하이원리조트가 우리 소중한 꿈나무들과 함께 희망을 열고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가는 청소년을 돕기 위해, 하이원은 행복디딤돌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강원도 폐광지역은 정선 태백 영월 삼척에 걸쳐 있으며 과거 주요한 에너지 생산지였으며, 현재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관광메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